

이 광 미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Body painting의 교육적 가치에 관한 연구

2004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전공
설 현 진

Body painting의 교육적 가치에 관한 연구

이 광 미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전공

설 현 진

인 준 서

설현진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박복규 印

審査委員 이광미 印

審査委員 김정희 印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body painting의 예술적, 정서적 교육적 가치에 대해 연구하여 이미 기존의 교육으로는 흥미를 찾지 못하는 피 교육자들로 하여금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제시를 위한 기초 자료로 의미를 목적으로 한다.

body painting은 시각적인 표현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조형적으로 창조 발전시키는 예술의 한 과정으로 그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예술은 그 시대의 정신적 형태와 시대적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예술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는 body art보다는 좁은 의미로 그 신체적 예술성만으로는 아직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body art는 서양 미술사 전체가 신체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때 그 역사 또한 가치를 지닌다. body art의 역사가 미술적으로 접근되든, 신체장식이라는 본능으로 접근되든 이는 돌아서 결국 하나의 예술적 표현 방식으로 전환되어지고 있고 이미 'performance' 라는 예술의 한 분야는 어색하지 않게 미술의 한 장르로 인정받고 있다. 20세기 초반에 다다이즘과 개념미술에 의해 body art가 대두되고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문화적 다원주의·절충주의·불확정성등 가치변화는 예술 전반에서 표현의 무제한성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부 현대 예술가들은 '원시로의 회귀'를 통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원초적 생명력을 찾고자 하였으며 그것으로부터 창조적인 영감과 모티브를 얻어 탈 형식의 무의식적인 원시에 대한 향수와 인간 본성이 지닌 필연적인 요소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생명력 있는 예술을 창조하고 있다. 이에 원시미술에서 찾아 볼 수 있는 body art에 대해 고찰해 보고 body art의 표현양식 중 하나인 body painting의 동기를 몇 가지 설에 의해 구분하고 분석함으로써 이 행위의 목적을 체계화 하고 인류의 문화를 신체예술 측면에서 이해하고 body painting의 기원과 유래를 알아 봄으로써 오랜 역사를 가진 문화적 유산을 이해하려 하였으며 현대사회에서 행해지는 body painting의 예술적 가치와 정서적 가치를 미술사의 몇 가지 유파와 청소년 정서를 바탕으로 대해 정리해 보았다.

body painting은 종이나 캔버스가 아닌 인체를 표현장소로 함으로 좀더 흥미를 이끌 수 있으며 기존의 전통적 방식이 아니어서 스스로 표현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놀이와 같은 느낌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또한 핵가족화로 개인적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작업을 하는 가운데 사회성에도 긍정적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시청각적인 요즘의 청소년들에게 좀 더 흥미를 갖게 이끌어 창의적인 사고를 개발하고 수업에 참여하며 정서적 변화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처럼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데 효과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정서적 가치를 점검하고 연구 분석하고자 한다. body painting은 인간의 성장발달 단계에서 창의적 행동에 기초가 되며, 예술 교육을 통한 정서 교육은 잠재력에 무한한 발달가능성과 가치를 갖게 된다. 이러한 교육적 바탕이 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body painting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적 가치를 예술적 면모와 정서적 면모로 분리하여 연구해 보려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1
2. 연구방법 및 제한점	2
II. body art의 이론적 고찰	4
1. body art 개념	4
1) 미술사에서의 body art	4
2) 신체장식으로의 body art	5
2. body art의 실제	7
1) 문신(Tattoo)	7
2) 상흔(Scar)	10
3) 피어싱(Percing)	11
4) 헤너(Henna)	13
5) 기타	14
3. body painting의 이론적 고찰	16
1) body painting의 기원	16
2) body painting의 색	17
3) body painting의 기능	18
4) body painting의 변천	23
5) body painting의 주제	26
6) body painting의 기법 및 재료	27
III. body painting의 교육적 가치(예술적 범위)	30
1. body painting의 예술적 가치	30
1) body painting의 미술사적 가치	31
2) 퍼포먼스 와 body painting	34
2. body painting의 정서적 가치	36
1) 청소년 정서의 이론적 고찰	36
2)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	43
IV. 결론 및 제언	47

도판

참고문헌

ABSTRACT

그 립 목 록

〈그림 1〉 의식을 준비하는 뉴기니아의 추장	50
〈그림 2〉 입술 주변에 한 피어싱 장식	50
〈그림 3〉 두 개골의 변형을 한 남성	50
〈그림 4〉 허리에 한 단색의 용 문신	50
〈그림 5〉 문신도구	51
〈그림 6〉 축제분장 한 마오리족 추장	51
〈그림 7〉 반흔 문신을 한 가나의 여인	51
〈그림 8〉 양각 패턴의 상흔장식	51
〈그림 9〉 누바족 여인의 상흔	52
〈그림 10〉 코에 피어싱을 한 카메룬 여인	52
〈그림 11〉 커다란 금 귀걸이를 한 폴라니 여인	52
〈그림 12〉 lip-pluge를 한 차드의 남성	52
〈그림 13〉 코에 투구벌레의 뿔을 장식한 뉴기니아인	53
〈그림 14〉 손에 장식한 헤나	53
〈그림 15〉 발에 장식된 헤나	53
〈그림 16〉 의식에 참석하기 위한 신체장식	53
〈그림 17〉 판박이 타투를 한 아기	54
〈그림 18〉 흰 진흙으로 얼굴을 채색한 가나의 무당	54
〈그림 19〉 흰색의 채색을 한 오스트리아 원주민	54
〈그림 20〉 가부기 분장을 한 여인	54
〈그림 21〉 다산과 밝음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채색	54
〈그림 22〉 상징적 색을 사용하는 중국의 경극	55
〈그림 23〉 green색의 축제연극 분장	55
〈그림 24〉 한국축구 응원단 붉은 악마	55
〈그림 25〉 치장을 하는 나이지리아의 남성	55
〈그림 26〉 누바 수단의 노란색 분장하는 남자	56
〈그림 27〉 보호의미의 문자 장식을 한 아기	56
〈그림 28〉 진흙으로 그림을 그린 아사트 여인과 아기	56

<그림 29> 이집트 여인의 화장	56
<그림 30> 나이를 상징하는 신체 장식	56
<그림 31> 누바의 기린을 그린 신체장식	57
<그림 32> 영적인 세계를 보려는 목적의 눈 장식	57

I. 서론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서양 미술사 전체로 볼 때 미술은 신체로부터 출발했다고 할 수 있으며 미술은 긴 시간동안 신체를 다루어 왔다. 미학은 시대에 대한 담론으로 탄생했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역사적으로 우리 신체는 미학적 표상의 매개물이 되어 왔다.¹⁾ 현대에 와서 신체에 대한 금기가 사라지고 우리 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새로워진 배경 위에 신체를 다루는 미술이 부각되는 것은 어쩌면 다양한 일로 여겨지며 현대에 와서 신체를 매체로 한 예술적 표현은 흔한 일이 되었다. 미술은 더 이상 자연의 재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참된 미술은 모방을 떠나서 작가의 머리 속에서 창조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깊이 흐르고 있다.²⁾

미술사적 body art는 기존의 예술 형식인 전시와 감상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일반 대중과 시대와의 교감을 중시한다. 이미 현대에 있어서 body art는 새로운 한 분야로의 장르가 되어 그 예술적 매력을 풀어놓고 있다. 반면 body art의 한 분야이면서 그 독자적 역량을 넓혀 나가고 있는 body painting은 캔버스 대신 인체에 그림을 그리고 인체를 이용하여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술 장르에 속해 있지 않다. 인체를 빌어 예술로 승화시키기에는 인체자체만으로 표현의 한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인체에 행해지는 body painting은 인체예술에 감초 같은 역할을 하며 때에 따라선 부연 설명까지 될 수 있다. 이는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의 내면세계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 이는 충분히 예술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 다른 접근인 신체미술로의 body art는

1) 강대회, 현대미술의 문맥읽기, 서울 : 미진사, p.115

2) 이화여대출판부, 몸과 미술, 서울 : 한림미술관, 이화여대 기호학연구소, p.10.

그 본능적인 기원을 거슬러 올라오면서 본능적 표현이 발달된 형태로 정리되고 있으며 정서적 영향까지 나타내고 있다. 정서는 인간의 심리적 발생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 중요한 요소로 이러한 정서의 중요성은 최근에 지적인 능력과 더불어 강조되어지고 있으며 정서의 구체적인 이해와 정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body painting의 교육적 의미를 파악하여 기능과 지식의 습득에만 치우친 오늘날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접근의 교육 형태를 제시해 보려 한다. 현대의 미술교육은 조형 활동을 통하여 순화된 정서로 바람직한 인간성을 형성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직 body painting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이용한 교육연구논문도 나와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body painting의 교육적 가치를 제시하여 인성과 창의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2. 연구 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는 body painting의 교육적 가치를 연구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body art와 body painting에 관한 이론적 분석을 위해 body art에 관한 국내외 여러 자료와 연구 논문에 발표된 논문을 참고하였다.

본 논문의 구체적 내용은 제 1장에서는 연구의 의의 및 목적을 제시하고, 방법 및 제한점을 규정하였다.

제 2장에서는 body art에 미술사적 개념과 신체장식으로의 개념에 대해 분류하여 정리하였고 body art의 실제에 관한 기초적 사항들을 논구(論究)하였다. body art의 한 분야인 body painting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 교육적 가치연구에 앞서 정리하였다.

제 3장에서는 body painting의 다다와 개념미술, 수퍼리얼리즘의 미술사적

접근으로 예술적 가치를 정리하였고 이러한 미술적 가치를 지닌 body painting의 정서적 가치 부분도 청소년의 정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제 4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기초로 하여 결론 및 제언하였다.

본 논문은 body art와 body painting의 전반적인 가치에 대해 고찰을 하였으나 이러한 교육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실제의 교육과정에 적용을 하여 실행해 보지 못하였고 연구에 머물러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자료를 고찰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설로서 불완전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II. body art의 이론적 고찰

1. body art의 개념

1) 미술사에서의 body art

유사이전부터 미술은 신체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선사시대 흔적 중 오늘날 우리가 예술적이라 부를 수 있는 최초의 것들에서 나타나는 사실들, 즉, 손으로 찍는다든지 주술적 의식과 미술활동이 복합되어 있다든지 어떠한 목적을 위해 신체에 채색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사회적, 정신적, 예술적인 모든 활동이 하나의 범주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현재의 신체미술이 지향하는 목표 중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신체미술이 갖는 개념의 정립에 대한 인류학적 근거가 된다.

오늘날 예술적 표현이라 할 만한 것들은 주술적 행위와 관련된 삶의 일부뿐이었다. 원시인들은 희망하는 것이 현실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행위로 의식을 중시했고 이러한 의식이 미술적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맥케빌리는 ‘음지의 예술’에서 퍼포먼스의 유래를 설명하면서³⁾ 그것은 원시시대의 하나의 의식적 행위의 차용에 근거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예술로서의 body art의 개념을 미술사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미술사에서 body art는 그 근원인 고대부족의 의식처럼 행위예술(Performance Art)의 형태로 나타났고 이것은 이전의 미술이 가진 ‘이미지의 재생 혹은 고정’이라는 관념 하에서는 낯선 것이었다. 그 ‘행위’가 미술로서 용인되기 시작하는 것은 20세기 전반의 모더니즘의 퇴조에서부터 가능한 것이었다.

3) 홍명섭, 전환기의 현대미술, 솔학술총서, 1991, 서울, p.224.

60년대 중반 이후 서구의 많은 미술가 들은 예술에서의 경직된 사고를 부정하고 고급 예술이 되어버린 순수추상위주의 모더니즘을 비판하고 나서게 되면서 미술은 회화와 조각이라는 공식과 캔버스와 미술관이라는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표현 언어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의 전환으로 60년대 자신의 몸을 도구로 작업했던 ‘body art’의 형식이 미술의 한 장르로 용인되게 된 것이다.

살아있는 몸짓이 기성예술의 고정화에 이색적으로 사용된 것은 다다의 정신과 관계가 있는 것이며 또한 실체가 없이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아 ‘개념이 소재가 되는 미술’ 즉 개념미술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었다. 행위자체의 도입은 그것이 다다정신과 개념미술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보다 정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실존주의적 정서의 보편화에 상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디 아트 작가들이 관념화된 신체 대신 스스로의 현실적인 몸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 자각적 존재로서의 신체에 주목하는 것이다. 신체자체의 ‘리얼리티’는 실존주의와 body art의 정서적 공통분모인 셈이다. body art는 결국 돌아서 애초의 실용의 목적으로 행해졌던 그 본래의 형식으로 미술사에 자리 매김 하게 된 것이다.

2) 신체장식으로서의 body art

인간은 우리가 ‘원시’라고 부른 시기보다 훨씬 이전부터 혼례, 위엄 보호, 기원, 상징 등의 목적을 위해 신체를 장식하였으며, 부족에 따라서는 오늘날 까지도 아름다움이나 자기과시의 형식을 위한 신체장식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신체는 인간의 영혼과 실체를 연결시키는 유기적 존재로써 사회생활 속에 인간 자신을 직접 투영시켜주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육체적 표현의 관습들은 특정 사회의 가치관을 이해 할 수 있게 하며,⁴⁾ 특히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4) Victoria Ebin, 임숙자 역, 신체장식, 경춘사, 1988, p.5.

익숙하지 않았던 원시사회에서는 친밀하지 않은 다른 민족을 이해하는데 신체 장식은 중요한 수단 이었다.

원시인들은 자신을 아름답게 하려는 욕망에서 채색이나 문신을 통하여 몸을 장식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신체상의 다양한 장식 동기와 방법을 구사하였다. 신체장식은 자연 속에서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여 주는데, 신체 장식을 통하여 자연 환경이나 사회 환경으로부터의 두려움에서 신체적, 심리적 보호를 받거나 소속집단의 사람들과 외부인을 정확하게 구별하면서 자신의 집단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였으며, 소속집단에서 권위와 지위, 성공의 정도를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뿐만 아니라 제식 행사와 의식 행사에서 보여 지는 장식<그림1>은 신에 가까운 위엄을 보이기 위한 지위와 재력이 있는 자들의 그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또한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거나 이성의 주의를 끌기 위해 신체의 일부를 은폐하거나 뛰어나게 장식하기도 하였다.

인류발생 초기부터 인간은 태어나면서 물려받은 신체를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며, 변화를 주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관습을 따르고 그것에 관련한 기술들을 이용하여 왔다. 그 관습은 아주 오래 전부터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방법으로 아주 다양한데, 일시적인 장식과 거의 영구적인 장식으로 나눌 수 있다⁵⁾. 일시적인 방법이란 피부 속으로 침투하지 않는 장식기법으로 피부 표면에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신체 장식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신체 일부분이라도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거나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제외한 방법이다.

또 하나는 피부 속으로 침투시키는 영구적인 방법인데 색소를 이용한 문신 외에도 신체 일부를 늘리거나, 뚫으며, 절단시키는 행위에서부터 골격 구조의 변화 등을 통한 장식과 켈로이드 증상의 상흔, 피어싱,<그림2> 다수의 목걸이 착용으로 목 늘리기, 귓볼 늘리기, 입술 늘리기, 뚫은 구멍 늘리기, 두개골 늘리기<그림3>, 발목 늘리기 등의 지속적인 변형과, 거세, 할례, 치아를 뽑거나 갈

5) Karl Groning, Decorated Skin, Thames and Hudson, New york, 1997, p.131.

고 박는 절단 행위도 있다. 장식 형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도구가 이용되어져 왔으며 그것들은 실로 놀라운 것들이었다.

현대 body art는 얼굴과 몸에 채색을 하는 Face 및 Body Painting, 물감을 새겨 넣어 장식하는 문신, 구멍을 뚫어 장식하는 피어싱, 피부 표면을 염색하는 헤나로 구분되며 신체에 장식된 body art는 때때로 조명과 음악과 의상 또는 소도구와의 조화와 함께 주제에 맞는 표현을 위한 퍼포먼스를 포함하는 예술 관념적인 차원으로 선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시각예술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양식의 흐름을 형성하면서 예술과 삶의 조화를 이뤄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body art의 실제

body art의 표현 유형으로는 신체 자체를 직접 변경하는 문신, 상흔, 피어싱, 변형 등 영구적인 장식과 헤나, 페인팅과 같은 일시적 장식으로 분류 될 수 있다. 이러한 장식들은 모든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그 목적과 의미는 각각의 문화에 따라 다양하다.

이번 장에서는 문신, 상흔, 피어싱, 헤나에 대해 정리해 보고 페인팅에 관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따로 언급했다.

1)문신(Tattoo)

문신(tattoo)이란 살갓에 상처를 내고 물감이나 먹물을 사용하여 글씨나 그림 또는 무늬를 새겨 넣는 것을 말한다.<그림4> 몸에 치장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신은 먹을 사용한다고 해서 입묵(入墨)이라 불려졌고, 글자나 문양을 새겨 넣는다고 해서 자자(刺字) 혹은 자문(刺文)이라 하였다.⁶⁾ 문신은 피부색에

따라 두 가지 양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피부색이 아주 짙은 종족에서는 상흔 또는 난자(亂刺)의 방법이 이용되고, 피부색이 옅은 종족에서는 색소를 사용하는 고유의 문신이 행해졌다.

문신의 어원은 원래 폴리네시아 군도의 타히티(tahiti)언어 중에서 ‘예술적’이라는 의미를 지닌 ‘tatau’에서 유래 된 것으로 불어로는 ‘tatouage’ 독어로는 ‘tatowirung’ 이태리어로 ‘tatouaggio’로 각각 불리고 있다. 1769년 Captain Cook이 쓴 Tahiti 탐사일지에 의하면 ‘그들은 그들의 몸을 동물의 뼈로 만든 작은 도구들로 눌러 찍거나 뚫어 만든 흠집에 기름기가 있는 땅콩 따위를 태운 연기를 이용해 만든 진청색 또는 검정색의 염료로 채운다. 그 원주민들에 의해 불려진 Tattaw라는 이 방법은 피부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 그것은 그들이 열 살이나 열 두 살쯤 되었을 때 몸의 특별한 부분에 행해진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Tattow는 많은 폴리네시아인들의 언어로 두드리거나 때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Ta’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사전적인 개념의 타투는 문신 또는 문신하다의 의미 앞에 ‘둥둥 경고하는 소리’ 그리고 ‘톡톡 두드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날카롭고 뾰족한 도구<그림5>를 얼굴에 대고 작은 방망이를 이용하여 그 도구를 때리는 기술’을 함께 의미함을 알 수 있다.⁷⁾

신체 장식의 방법 중 하나인 문신은 세계 도처에서 발견된다. B.C 4000년 혹은 B.C 2000년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이집트의 미이라에서 문신이 발견되었으며 고대의 트라키아인, 그리스인, 갈리아인, 게르만인 들도 문신을 했다는 고전 작가들의 기록이 남아 있다. 로마인들은 죄수와 노예들에게 문신을 새겼으며 그리스도교 출현 이후 유럽에서는 문신을 금하였지만 동부유럽에서는 여전히 성행하였으며 중동지역과 그 밖의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행해져 왔다.

6) 두산동아백과사전연구소 편저.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제10권. 서울:두산동아,1996, p.591.

7) Victoria Ebin 저, 임숙자 역, 신체장식(The Body Decoratde), 서울:경춘사, 1988, p.83.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들도 관례적으로 몸이나 얼굴에 문신을 했다고 한다.

문신의 보편적 방법은 바늘로 찔러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만 캘리포니아의 몇몇 부족들은 굽힌 상처 안에 물감을 새겨 넣는 방법을 사용했고 북쪽 지방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인들, 동부 시베리아의 몇몇 민족은 색소를 문힌 실을 바늘에 꿰고 이것을 찔러 당겨서 모양을 새겼다.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여러 지역에서는 작은 갈퀴 모양의 도구에 솥을 사용한 색소를 문혀서 피부를 가볍게 톡톡 찔러 색소가 피부에 스미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오세아니아의 마오리족은 굉장히 복잡한 남성의 문신으로 유명한데, 놓은 지위에 있는 일물은 얼굴 전체를 곡선이나 직선, 당초문이나 와상선으로 빈틈없이 장식했다.<그림6> 여성들은 손에만 간단히 시술하는 데 그치고 있으나 남성은 배꼽에서 허벅지 까지 다양한 무늬로 장식했다. 타히티, 투아모투, 마르케이사스, 쿡 등 여러 섬의 주민들은 문신을 널리 이용하는데 특히 마르케이사스 군도의 사람들은 눈꺼풀, 입술에까지 시술하여 세계에서 가장 문신을 많이 하는 종족으로 유명하다.

동양의 역사 속에서도 문신의 사용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문신을 죄인의 처형이라고 여겨 일반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않았지만 중국 상나라와 주나라 사람들은 죽은 자의 가슴에 문신을 새겨 넣어 붉게 물들임으로써 영혼을 따라 빠져 나온다는 관념이 있었다. B.C 1200년경 주공단의 두 아들인 태백(太伯)과 우중(虞仲)이 형만으로 피신하여 살 때 머리를 깎고 문신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미 사망한 표시의 수단으로 살았으며 이미 영혼이 빠져나갔음을 의미한 문신행위였다.⁸⁾ 일본에서도 하층사람들 간에 유행하였고 전과자들의 형벌로써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한 시대부터 문신을 했음이 기록으로 남아 있고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에도 도둑의 이마나 도망가는 공사노비에게 자자(刺字) 하였다고 한다. 긴 세계의 역사를 통해 바라보면 문신은 원초적인 신체 표현 방법으로 동서양을 불문하고 존재하고 있는 신체미술의 한 방법이며 다양

8) 전환길, 한국화장문화사, 열화당, 1999, p.13.

한 인간 욕구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에 와서는 문신은 아름다움과 고통 그리고 영원함이라는 불멸의 상징으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문화적 표식으로 인식되고 있고 현재에도 미술의 한 분야로 패션의 한 부분으로 그 역사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2)상흔(Scar)

상흔(Scar) 또한 문신(Tattoo)의 범주에 속하지만 이는 피부색이 짙은 경우 문신이 효과를 볼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대응적 문신⁹⁾이다. 색소를 사용하여 피부를 물들이는 형식이 아닌 피부 자체에 상처를 내어 행해졌다. 반흔 문신은 상흔 문신의 하나로 살을 배어 흠집을 낸 다음 상처가 아물 때 까지 그대로 두면 우묵한 직선의 흉터가 생기는데 이를 반흔 문신<그림7>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수법은 널리 퍼져 있지는 않으나, 아프리카에서는 수단인(人)이나 호텐토트가 사용한다.

중부 아메리카에서는 콜럼버스 이전의 퀘바족(族) 사이에 성했으며, 멜라네시아에서는 산타크루즈 섬에서만 행해졌다. 이 섬사람들은 얼굴과 가슴·등에까지 상흔을 냈다. 그리고 보다 널리 보급되고 있는 상흔문신은 켈로이드 증상의 상흔이다. 그 과정은 상처를 낸 곳에 자극제를 문질러 바르는데 그것으로 인해 상처가 오염되어 결국은 피부위에 양각 패턴의 흉터조직<그림8>을 만들게 되므로 이런 흉터들이 나름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큰 고통이 따르나 이 고통은 결국에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이는 부조(浮彫)가 된 큰 상흔으로서(西)아프리카의 반투족(族)이나 나일강(江)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으며, 여성들이 주로 이용한다.

남부 수단에 위치한 많은 Shilluk인은 낚시 갈고리로 앞이마의 피부를 찌서 끌어당기고 이때 날카로운 칼로 피부를 잘라낸 뒤 그 부위를 진주로 장식하는데 그들이 어렸을 때 만들어진다. 이러한 절개의 형태는 Shilluk사회의 일

9) 이유경 외3역, 복식사회심리학,서울:경춘사, p.38.

원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고통을 통하여 집단의 소속됨을 인정하게 된다.

Nuba족 여인들은 분만 후 격리로부터 돌아왔다는 것을 상흔으로 표시한다. 이 상흔은 뿔로 피부를 당겨 올린 뒤 칼로 다시 베어 내어 만든다.<그림9> 이렇듯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상흔은 시각적 효과 뿐 아니라 촉각적으로도 에로틱한 느낌을 갖게 하여 여성의 성적 매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다. 이러한 집단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 관습인 문화에서 상흔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행동이며, 미적인 행동으로 표현된다. 또한 이때의 패턴이 특별한 목적이나 특정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현대에 와서는 미적 개념이 원시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를 가져서 이상 상흔을 이용한 문신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많은 현대인들이 인공 보조거나 쌍꺼풀을 위한 눈꺼풀의 절단 등 사회적 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 이 또한 현대적으로 개량된 상흔에 속 한다 볼 수 있다.

3)피어싱(Piercing)

상흔의 또 다른 방법인 피어싱은 역시 피부색이 어둡거나 문신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로 사용되었던 신체 장식의 방법이다.

원시인은 원시시대부터 귀나 코를 뚫어 조개껍질, 동물의 뼈, 깃털, 쇠붙이 등을 꿰어 왔으며 계속해서 지금까지 귀 코, 입술, 눈썹 그리고 혀 등 얼굴의 모든 곳과 배꼽, 유두, 성기까지 신체의 모든 곳에 구멍을 뚫거나 보석장식을 하였다.¹⁰⁾
<그림10>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도 피어싱 장식이 많이 나타나는데, 남성이나 여성 등이 더욱 관능적으로 보이기 위해 유두나 복부에 금속을 달거나 성기를 뚫어 무거운 것을 달아 길이를 확장하고 때로는 뚫어진 구멍을 점점 더 크게 넓히기도 하였다.

10) Nancy Etcoff, Survival of the prettiest, Doubleday, 1999, p.99.

피어싱의 형태로 표현된 신체장식의 목적은 자신의 성적 매력을 발산함으로써 이성을 흥분시키는 역할을 했다. 또한 그 사람의 부와 권력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으며 그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타내는 힘과 권력의 정도가 달랐다.

말리(mali)의 풀라니(Fulani) 여인은 금, 은 보석으로 장식하였고 특히 커다란 금 귀걸이는 물질적 부를 상징한다.<그림11> 이에 수반하는 귀불의 변형은 자랑스러운 것이다. 또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의 사라왁(sarawak) 여인은 콧불이 늘어나도록 큰 귀걸이와 에메랄드, 루비로 장식한 금니를 하고 있는데 이는 그녀의 부유함을 나타내며 그들 사이에서는 매우 훌륭한 장식으로 여긴다.

에디오피아 남단 수르마(Suruma) 족 여성들은 결혼을 앞둔 15세 정도가 되면 아랫입술을 잘라 점차 큰 접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입술을 늘렸는데 이 접시의 크기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은 풍습은 노예 상인들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설과, 주변 종족이 여자들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기형화시킨 것이라는 설이 있고, 그들의 종족의 유지 및 생존을 위해 여자들의 입을 기형화시키고 그 모습을 아름답게 느끼도록 설득시켜 온 것¹¹⁾이라는 설이 있다. 차드(chad)에서는 여자 뿐 아니라 남자도 lip-pluga를 착용<그림12>하였고 아프리카 다른 지역에서는 돌이나 석영, 점토로 만든 것도 있다.¹²⁾

피어싱의 또 다른 목적으로는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혐오스럽게 장식하여 상대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였다. 아스마트(asmart)족은 코를 뚫어 동물 뼈로 만든 코걸이를 달았으며 뉴기니아인들 역시 코를 뚫고 위압감을 주는 뿔을 찢러 넣어 장식<그림13>하여 이것으로 상대를 위협하고 자신들을 보호하였다. 인간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주변의 다른 매체로부터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자 하였으며 피어싱의 방법도 그런 것의 일종이었다.

현대에 와서 피어싱은 심미적이며, 시각적인 것으로 대중 속에서 일반화 되어 유행 되고 있으며, 문신과 함께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예술 표현 행위의 하나로

11) 전규태, 마지막 원시인, 백문사, 1992, p.64.

12) Victoria Ebin 저, 임숙자 역, 위의 책, p.14.

점차 인식되고 있다.

4)헤너(Henna)

염색의 일종인 헤너는 실물의 잎을 건조한 후 그 가루로 손과 발 등을 장식하는 방식이다.

헤너는 라소니아 이너르미스(Lawsonia inermis)라는 식물의 잎 속의 타닌산이라는 자연염색 속성을 지닌 헤너가루를 이용하는 것으로 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에서부터 말레이시아까지의 많은 국가들이 헤너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명칭 또한 다양하다. 주로 대표적으로 아랍어인 ‘헤너’로 인도어로는 ‘헨디’라고 불려진다. 헤너는 염색과도 같이 피부의 겉을 물들이는 것으로 이것은 피부에 상처나 손상을 입히지 않는 방식으로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자연스럽게 원리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헤너는 교원질(피부세포)와 각질(머리카락과 손톱세포)을 쉽게 염색 시키는 헤너타닌산(Hennatonisxan)을 포함하고 있다. 헤너의 장식은 피부표면이 벗겨질 때 까지 유지되어 새로 생긴 피부에서는 헤너 자국이 남지 않게 되어 일시적인 신체장식만 할 뿐이다.

헤너는 아주 오래전부터 화장과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헤너의 사용이 믿음에 관련되어 종교적 행사에 사용되기도 하였고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의 행복을 기원하는 신부의 장식으로도 사용되었으며 결혼 풍습 뿐 아니라 여성의 화장품처럼 사용되기도 하였다. 헤너장식은 악마와 질병을 쫓아내는 보호의 의미¹³⁾로 또는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미화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 예를 찾아보면 힌두교도들과 인도에서는 결혼준비의 일환으로 헤너를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신부들은 헤너 의식동안 아내로서 좋은 신부로서 지위와 의무

13) Rufus C. Camphausen, Return of tribal, Park Streer Press, 1997, p.47.

에 대해 교육 받게 되며, 그녀의 행복을 바라는 친구들과 가족들에 의해 신부의 몸매 헤너가 그려지게 된다. 부와 명예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로 행하여 졌다.

이슬람교도 누바(nuba)족 여성들은 평소 얼굴 화장보다 손과 발에 꽃무늬의 헤너¹⁴⁾를 하고 있었으며 회교도인들은 치료를 목적으로 그들의 손을 헤너로 희석한 물에 담그거나 헤너를 바르기도 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헤너와 관련된 치료의식을 하며 헤너가 악마와 질병을 쫓아내는 신비스러운 것으로 믿었다. 또한 헤너를 해열제로 쓴 종족¹⁵⁾도 있다.

헤너의 무늬는 아주 다양하며 다양한 디자인은 건강한 육체, 풍요로움, 지혜로움, 방어, 정신적 교과 등과 같이 각 문화의 구성원들에게 다른 의미를 지닌다. 아랍의 헤너 디자인은 보통 손<그림14>과 발<그림15>에 하는 큰 꽃무늬이며 인도에서는 손, 발, 정강이 전체를 헤이스, 꽃등의 무늬를 날카롭고 가는 선으로 표현하였다.

현재의 헤너는 좀더 심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영구적 문신장식이 주는 고통과 심리적 부담을 벗어나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5)기타

현대에 와서는 전통적인 방법과는 다른 방법의 신체를 장식이 나타났다. 대부분 일시적인 형태를 지녔는데 신체채색과 화장 등의 전통적 방법에서 크리스털 타투¹⁶⁾나 판박이 등의 좀더 발전 된 또 다른 형태의 방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채색은 과거에는 평소와 다르게 입으려는 방법으로 의식이나 특별한 경우에 행해졌다.<그림16> 가령 파푸아 뉴기니의 전사에게서 볼 수 있는 해골의 디자인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현실적 신체를 넘어 그 속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보여

14) 전규태, 앞의 책, p.71.

15) Rufus C. Camphausen, 앞의 책, pp.47-48.

16) 작은 큐빅들을 피부에 붙여서 형태를 만드는 일시적 장식기법

준다. 또한 무대에서의 채색은 인물의 성격이나 분위기 등 색상에 따라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신체채색(body painting)에 관한 것은 아래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다.

판박이나 크리스털 타투의 형태는 현대에 와서 좀더 일반화된 일시적 문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때 넘쳐나던 피부용 판박이<그림17>는 혁신전이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분위기나 상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평생이라는 부담은 벗어버릴 수 있는 상징적 방법이었다. 피부에 부담도 없이 물만으로 간편하게 3초면 원하는 문양을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현대인이 원하던 ‘그것’이었다.

신체 장식은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행하여지는데 이러한 형태의 현대화된 타투는 미화를 위해서도 상징적 의미에서도 훌륭한 것 이었다. 또한 크리스털 타투는 나만의 개성이라는 욕구를 훌륭하게 해결 해 주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외에도 네일 아트나, hair dressing¹⁷⁾, hair coloring 그리고 문신이나 영구적이지 않은 Semi-Permanent Makeup 또는 Contour Makeup¹⁸⁾ 등의 현대인에게도 점점 더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의미를 신체장식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17) hair dressing은 머리 스타일을 의미한다. hair는 신체상 장식과 외적 장식의 두 요소를 포함하는 유일 한 신체이며 또한 신체일부의 제거나 변형을 포함하지만 일시적인 변화이다. 스타일의 다양하고 과감한 변형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18) 천연재료로 만들어진 색소로 표피층에만 침투시켜 지워지지 않으나 3-5년 후 자연스럽게 신진대사에 의해 피부의 탈각화로 색이 사라지는 화장술

3. body painting의 이론적 고찰

1) body painting의 기원

body painting과 body art는 일반적으로 비슷한 표현처럼 들리지만 이 두 장르는 동일한 개념은 아니나, body art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body painting보다 더 넓은 의미이며 시각예술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양식적인 흐름을 형성하면서 전통적인 body painting을 포함하고 있다.

body painting을 단순히 신체에 색을 입힌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그 기원을 찾는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신체를 장식한다는 것은 인간 본능적인 부분이기도 인류가 발생한 시점부터 신체의 painting은 이루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벽화나 유물을 통해 우리의 원시 인류가 다양한 목적으로 자신의 몸에 색을 이용하여 painting을 함으로 나름대로의 욕망을 따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흙에서 나온 광물, 안료, 황토를 주로 사용했는데 그것은 빨간색에서 노란 색까지 다양한 색조로 발견된다. 망간에서는 검은색을 석회에서는 흰색 같은 광물 안료를 추출하기도 하였고 붉은 황토가 body painting의 재료로 사용되곤 했다.

body painting은 그것이 외모를 가꾸는데 쓰였는지 다른 부적과의 구별을 위해서든 또는 종교적 의식으로 사용되었던 문화가 발전하면서 점점 더 세련된 방법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 예로 이집트 여인들의 분장을 들 수 있겠는데 진일 보한 문명이 처음 나일 강에 출현하였을 때 아나톨리아, 메소포타미아와 동아시아 상류계층의 여인들에 의해 사용된 분장은 종교적 의식에 사용된 ‘채색된 얼굴’로부터 발달하여 부적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더욱 진보된 형태로 발전하였고 뜨거운 기후에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이렇듯 파라오 궁의 이집트 여인이나 중간계층의 여인, 아테네 상류계급인들, 메소포타미아 수메

르 귀족 여인들의 신체장식 행위는 오늘날의 painting기술 발전의 초석이 되었으며 현대사회에서의 body painting의 발전을 예견하게 되었다.

2) body painting의 색

body painting의 색의 사용은 필수적이며 각각의 색은 다양한 문화적 본능적 심리로 발전되고 전수되어 왔다. 채색된 신체예술에서 보여 지는 신비로운 경험은 마스크와 인체변형을 통해 원시인들 스스로 신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종교적인 힘을 갖게 하였다.<그림18> 색과 주술적 상징물들은 인간과 동물과 식물을 자연계도에 묶어서 그들을 하나로 연결시키기도 했다.

아프리카 사회에서는 흰 색칠이 성인식에서 사용된다. 성인식 동안 흰색 골격 형태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이것은 조상들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젊은 여자들을 통해서 환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가끔은 흰색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루를 뿌리거나 색을 뿌리는데<그림19> 이런 전후 관계로 보아 아프리카 사회에서의 흰색은 순수함의 상징과 동시에 인간과 초자연적 세계 사이의 변화 상태의 표시를 나타낸다. 북아메리카의 body painting의 색의 의미는 좀더 다양함을 보이고 있는데 북아메리카 부족 중 Cherokee 부족이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red은 성공과 승리의 상징인 전쟁을 표현하는 색이고 blue는 패배와 고난의 상징이며 black은 죽음, white는 평화와 행복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많은 집단에게는 정 반대의 경우가 있다. 어떤 부족에게는 행복의 색이 다른 부족에게는 불행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본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body painting인 정형화된 하얀색의 ‘가부기’분장은 일본문화가 최초로 꽃피던 헤이안(794-1185)시대의 교토의 황궁에서 귀족 계급의 여인들의 미의 특징이었다. 귀족은 하얀 얼굴<그림20>은 교양 있는 연예가의 관직의 상징이 되었다.

아프리카 사회에서 red는 제각기 깊은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red는 여러 지역에서 피를 상징하거나 특수한 역할을 갖고 있거나 의학적인 효능과 주술적인

효과가 있다고 여겨지는 함축적 의미를 갖는다.<그림21> 함축된 의미 또한 그 색의 상징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기도 하고 특기 시대와 지역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즉 어떤 지역에선 red가 삶 기쁨의 색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슬픔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것이 body painting에서 색이 가지는 다양성이라 할 수 있다.

아시아 지역 중 중국에 있어 색의 의미는 경극의 서정적 드라마의 초기 단계의 분장으로 설명된다. 특수한 상징적 색과 화장은 각 인물의 유형을 암시<그림22>한다. red는 용기와 충성, 성실을 의미하고, 흰색의 얼굴은 짐승 같은 점과 타락을 나타낸다. blue는 잔인성을, yellow는 과묵함을 의미하며 악마와 귀신은 green얼굴<그림23>을 하고 있으며 하늘의 존재는 황제의 밝은 yellow(황제의 색)로 윤곽을 그린다.

현대에 와서는 어떠한 반대투쟁이나 시위에서 항의 내용을 표현함에 있어서 색이 body painting의 형태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형태가 응원이나 가절함의 내용을 표현하는 의미가 있다. 이때의 body painting의 선택된 색과 의미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광고물인 것이다. 대개 흰색이나 회색 빛 으로 죽음이나 재난의 상징, 또는 엄숙을 상징하고 붉은색으로 죽음, 피를 상징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같은 색인 white나 red의 의미가 서커스의 광대나 한국 축구 응원단인 붉은 악마<그림24>에게는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결국 색은 특수한 상황에 관련될 때 분명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상황의 감정이나 의미를 더욱 과장이나 강조하는 상징적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색이라는 것은 어느 문화에서든지 다양한 형태로 그들의 정신과 사회적 함축성을 갖는다.

3) body painting의 기능

인류가 태동하면서 painting이 이루어져 왔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성욕이나 식욕이 인간의 본능이듯 자신을 꾸미는 행위 또한 본능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신체는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을 투영시켜주는 매개체이며 육체적 표현

의 습관들은 특정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설을 근거로 body painting의 기능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미화설(美化說)

인간은 자기 용모를 다듬으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그림25>하여 우월함을 타인에게 각인 시키며 자신의 약점은 위장하려 노력해 왔다. 이는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본능이며 이를 위해 body painting이나 피부색이 어두워 색의 표현이 어려운 경우는 상흔으로 자신의 신체의 아름다움을 과시하였다. Nigeria 외곽 이웃지역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의 Wodabe집단은 작은 집단의 형태로 Sahara 지역을 유목생활로 지내다가 서로의 만남을 위해 1년에 한번 우기 때 Geerewol이라는 커다란 모임의 축제를 갖는다. 젊은 사람들은 파트너를 찾기 위해 신체에 그림을 그리고 치장을 하는데 이때 남자들의 painting은 그들의 사회적 개념의 미의 기준인 밝은 피부, 높은 이마, 좁은 코에 따라 자신을 치장한다.<그림26> 같은 마을 지역 동년배들은 대개 함께 치장하는데 각자 다른 사람의 등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교대로 페인트를 발라준다.

인도의 힌두인들은 이마를 신체의 순수한 부분으로 여겨 붉은 점을 찍는다. 이는 축복과 장식을 겸한 표시로 시작되었으며 지금에 와서는 그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고 미를 위한 장식의 의미만이 남았다. 이집트의 여인들은 유두에 붉게 painting 장식을 하였는데 이로서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위한 목적이었다.¹⁹⁾ 또 다른 인도의 서북부 해안 Kutch 지역에서는 문신이 아름다운 여성의 기준이 된다. 코, 얼굴, 목, 가슴의 위쪽, 팔, 손, 다리 등 몸이 보이는 곳은 모두 장식된다. 남성은 여성보다 훨씬 덜한 문신을 하며 낙타의 그림이나 종교적인 신화의 상징이나 대표물들을 문신하기도 한다. 여성이나 소녀들은 기꺼이 아름답아지기 위해 그 고통을 참아내는데 얼굴은 턱, 뺨, 입술 위쪽, 눈 옆 등은

19) Alpha Latzke, Helen p. Hostter, The Wide work of Clothing, New york:The Ronald press Company. 1967 p.14.

소수의 점들만 장식되고 손바닥에는 많은 문신을 한다.

고대부터 전 세계 사람들은 자신의 외형을 바꾸고 그들의 미적 감각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painting을 해왔다. 현대인들 또한 아름다워 지기 위해 make up을 한다. 이 역시 body painting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자신의 강점을 강조하고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최대한의 아름다움을 이끌어 낸다. 이것은 원시시대의 미화적 의미의 body painting의 행위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2) 보호설(保護說)

원시 인류가 몸에 상흔(Scar)과 문신(tattoo)을 한 것은 적을 공포감으로 몰아내기 위해 또는 자신을 적이나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인도 아이의 눈 주위에 바르는 유연안료(lampblack)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행하여졌다. 이는 인간이 심리적 물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그림27>으로 painting을 했다는 견해를 뒷받침해 준다. 아산트 여인들은 방금 출산한 아이와 어머니에게 보호를 위해 나뭇잎과 흰 진흙으로 몸에 모양을 그려 넣었다.²⁰⁾<그림28>

Berber 사람들은 siyala²¹⁾같은 장식물이 해를 막고 다산을 증가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Berber 여인들의 얼굴 뿐 아니라 손등에도 siyala 패턴의 painting을 하는데 해너물감을 사용하고 그것이 모든 면에서 강력한 보호를 해준다고 믿었다. 뿐만 아니라 발자국에 남겨져 있는 영혼에 주술적 행위를 하는 데에도 이를 사용함으로써 적의 힘을 방해 한다고 믿어 맨발과 발뒤꿈치에 siyala 패턴을 필요로 한다. 이는 일종의 현대에서 부적을 몸에 지녀 자신을 보호하는 주술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술적 보호 뿐 아니라 환경적 보호의 역할도 하였는데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 여인이 눈을 질게 칠한 것<그림29>은 태양열을 반사시키고 바람이나 모래, 독충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²²⁾ 이러한 형태는 현대의 야구선수들의 눈

20) Victoria Ebin 저, 임숙자 역, 위의 책, p.69.

21) 규칙적인 모양으로 뜨개질 된 형태의 견본

밑 검은 칠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눈부신 태양아래 경기를 할 때 빛의 반사로 시력을 보호하는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1800년대의 유럽 여인들이 백납 분을 사용한 이유가 가스등이나 촛불의 그을음으로부터 피부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함과 더불어 한낮의 태양으로 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²³⁾

우리나라에서도 삼한시대의 바닷가에 사람들이 바다와 강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에 물감을 들였고, 산촌 사람들은 산에 들어가지 전에 손톱과 발톱에 붉은 칠을 한 것이 있다고 한다.²⁴⁾ 이러한 painting은 주술적 보호뿐 아니라 환경적 보호의 역할도 하였는데 현대에 와서도 또한 이러한 보호적 기능은 나날이 발전해 하고 있고 색의 사용이 더 이상 아름다움의 추구만 에서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그대로를 지속, 방지, 보호의 의미로 변해가고 있음은 원시시대의 painting의 보호성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3) 상징설(象徴說)

원시시대는 신체 장식이 그들 자신을 군중 속에서 드러나게 만들고 종족을 구분시키며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냄과 동시에 존엄과 세력을 증가시키는 도구로 body painting이나 문신을 했다. 이러한 body painting은 신분이나 자신이 소속한 집단을 나타내는 상징성<그림30> 가지고 있기도 하고 종교적인 성향의 정신적인 믿음이 되는 상징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그러한 painting이라는 행위 자체의 상징성으로 자신의 용맹을 다지고 이를 통해 힘과 위압감의 war-painting의 의미도 가지기도 한다.

아프리카에서는 민족간에 행하여지는 특이한 머리형이나 귀걸이, 코걸이, 팔지

22) Blanch Payne, History of Costume, New york : Happer & Row Publishers. 1965. p.31

23) Mary Lou Rosencranz, Clothing Concept,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72, p.12.

24) 전완길, 한국화장문화사, 열화당, 1999, p.14.

등도 계급이나 신분, 부족을 구별하였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은 8-10세에 성인식을 치루게 되는데 귀를 뚫거나 페이스 페인팅(face painting), 머리형의 다양함, 또는 진주나 깃털을 섞어 거는 장식 등을 통해 소녀들이 행하는 성인식의 여러 단계를 알 수 있다. 여기서 face painting은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데 단순한 채색이 아닌 의미를 가진 상징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아프리카 남부 수단 Nuba산에 위치한 마을 중 Kau, Nyaro, Fungor의 마을에선 젊은 남자들이 몸과 얼굴에 painting을 하였는데 이는 17세에서 30세까지의 모든 남자들의 의무였고 그로서 body painting을 통하여 나이집단을 표현하고 공동체의 희망을 신체로 나타낸다.

남부 수단의 Dinka 사람들도 나이별 집단으로 나뉘는데 성인식을 치루고 어른이 되었을 때 깊은 빨 형태 혹은 평행선을 그들의 앞이마에 표시한다. 이는 중요한 사회적 표시를 위해 그들의 몸과 얼굴을 장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사회적 상징성이라 볼 수 있다.

아프리카 Xhosa 족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흰색으로 몸을 칠하고 매일 덧칠한다. 이것은 성인식 동안 그들이 사회를 벗어나는 '사회적'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상징한다.

아프리카의 유목민인 Surma의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은 젊은 남성들은 일년에 몇 차례 함께 모여 donga라 불리는 막대기 싸움을 한다. 이런 경우 남자들은 얼굴과 몸에 선을 된 형태로 장식을 하고 그들 마을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시를 한다. 그러나 그들의 painting은 그러한 목적 뿐 아니라 색채로 신체를 채색함으로써 개인의 힘을 강조하고 상대방에게 위압하여 승리를 얻기 위한 war-painting이기도 하다. 아프리카의 Masai 족의 팔과 다리의 문양도 전사들의 전쟁성과를 표현하는 기록을 하였는데 이 또한 성공한 사냥꾼으로의 용맹함의 상징인 동신에 상대방에게 위압을 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인도에서는 신분을 표시하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body painting이 있었는데 결혼을 한 여인들은 그들의 기혼을 알리는 위미로 붉은색안료를 머리를 염색했

다. 특히 신부의 경우는 피부는 쌀 물이나 쌀가루로, 얼굴은 red나 black으로 한쪽 발이나 손바닥을 헤니(henna)로 색칠하였다.

현대에 와서도 이러한 painting의 상징성을 다양한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한국 축구 응원단인 붉은 악마가 그 좋은 예가 된다. 붉은 색은 열정과 패기를 도발성향과 진취성을 상징한다. 이는 한국축구 발전의 염원을 기원하며 시각적으로는 상대 팀에게는 위압감을 주고 우리 팀에게는 힘을 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make-up이라는 문화는 일종의 (고통을 수반하는 성인식은 아니나)성인만의 소유물로 나이를 표시하는 상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미술작품에서는 painting이 가지는 색의 의미만으로도 강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painting의 상징성은 body art의 이해력을 향상 시키는 역할을 훌륭히 하고 있다.

4)body painting의 변천

(1)원시시대의 body painting

우리는 원시인이 언제부터 색을 이용하기 시작해서 자신의 몸에 painting함으로써 창조적 충동을 표현하고자 하였고 그들 나름의 방법으로 장식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원시적인 욕망을 따랐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다. 이러한 body painting의 행위는 이미 오래 전에 확립된 풍습이라는 것을 동굴의 벽화와 붉은 황토와 황토무덤 등이 암시하고 있다. 또한 색칠된 마스크나 신체예술의 변형 효과는 일상생활로부터 나온 애니미즘적인 종교의 표현이고<그림31> 그 시대 사람들을 그들을 신에게 더 가까이 데려다 주고 초기 인간에 대한 새로움, 신비롭고 종교적인 경험의 길을 열어 주었다. 원시시대의 body painting은 그것이 외모를 가꾸는데 쓰였든 다른 부족과의 구별을 위해서든 또는 종교적 의식으로 사용되었는지 발전을 거듭하게 되어졌다. 그것은 지금도 수천 개의 매우 발달된 이 시대의 예술적 표현의 본보기가 되고 있으며 미술사적, 예술 사회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2)고대의 body painting

이 시대의 body painting은 다른 예술적 표현들이 우발적인 동기에 의한 행위였던 것에 반해 종교나 사회적, 정치적 개념을 가진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그림32> body painting에 사용된 색들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의 중심세계와 연관이 있다는 개념에서 나오며 신과 성직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영혼의 세계가 조직되고 표현된다고 생각하였다.

고대인들은 바디페인팅을 통해 현세와 내세가 서로 왕래한다고 믿었고 모든 현상(새, 동물, 돌, 하늘, 땅 등)은 인간이 노력하여 얻어낼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열려있다고 믿었다.²⁵⁾ 춤, 노래, 육체적 장식과 색칠 하나가 곧 의학이며 수호, 영혼, 은총을 얻는 행위이자 믿음이다. 그들의 body painting은 믿을 수 없는 당당함과 자연으로부터 가져 온 다양한 형태를 혼합했고, 추상적 채색을 취하는 나체의 피부는 물질세계와 그 외의 모든 것을 연합하는 힘이 될 뿐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매개체였다. 특히 고대인들은 공동캠프에서 춤 의식을 행했는데 각종 종족은 자신만의 춤과 노래 그리고 body painting의 특징을 가지고 미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피부를 이용하는데 나무 조각가들처럼 피부의 표피를 자르기도 하고 조각가가 작품을 깎아내는 것처럼 피부의 본성을 바꾸는 것으로서 예술 표현을 했다. 그들에게 얼굴과 몸은 예술을 나타내는 캔버스인 것이다. 장식된 피부는 몸을 생동감 있는 조각품으로 바꾸어 놓고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끌어 올려놓는다.²⁶⁾ 그들이 표현하는 육체의 의식적인 디자인은 문화의 표현으로써 확실히 특색을 이룬다. 남아메리카의 주민(인디언)들은 춤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춤추기 위해 그들은 자신을 검고 붉고 흰색으로 색칠하여 어떤 이들은 흰 깃털로 몸을 덮듯이 장식한다.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의 피부에 다른 문화로부터 온 사람들의 호기심과 욕망으로 그들의 의상을 직접

25)이영경, 아프리카 원시문양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4, p.5.

26) Faris,J.C.,Nuba Personal Art, London, Duckworth, 1972, p.78.

자신의 몸에 채색기도 하였다.

(3) 현대의 body painting

현대의 산업화된 사회에서 장식된 피부는 바디페인팅이나 얼굴화장 같은 형식에서 찾을 수 있다. 현대의 피부장식은 순수하게 예술적인 충동을 위한 표현이지 더 이상 전통에 대한 본능적인 교체나 의식을 위한 언어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는 다르게 보이고 싶거나 모방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body painting에서 피부는 다양한 표현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즉흥성'이다. 순간의 열광 즉, 영원한 변경을 위한 욕구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디페인팅의 효과이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이를 측정할 수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어떤 것과 접촉하게 하며 해방되고 드러나고 싶어 하는 내면 속의 자아를 끌어다 주거나 완벽한 시각적 환상을 창조해 내는 바디페인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목할 일은 새로운 순수예술 장르로 태동하려는 현대작가들의 뚜렷한 노력이 있다는 것이다.

현대의 body painting작가들은 즉흥적 창작성과 세련된 작품성과 퍼포먼스를 통한 완벽한 시간적 환상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body painting이 순수예술의 장르로 접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현대 산업사회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그 존재가치를 창조해 나가고 발전시키기도 한다. 여기에는 body painting이 축제나 응원의 형식으로 문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쇼와 무용, 패션쇼 등의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무대, 조명, 음악은 물론 의상의 조화까지 이루는 종합예술로서의 면모를 고루 갖추기에 이르렀고 계속하여 발전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하겠다.

이렇듯 body painting은 원시시대의 주술적인 신앙으로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신체 예술의 형태로 이어져 현대에는 독특한 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아 왔으며, 즉흥적인 작품뿐만 아니라 실험성이 강한 작품까지, 그리고 무대에서 조명, 음악 그리고 퍼포먼스를 결들여 표현하게 되는 무대예술로서도 자리를 굳건히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의 행사에서 국제 비엔날레와 같은 국제적

규모의 예술행사에 이르기까지 빼놓을 수 없는 예술문화의 한 장르로까지 인식되어 가고 있다.

5) body painting의 주제

이러한 시점에서 body painting의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양하게 많은 주제가 미술사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의미로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으나 그 기원은 과거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그의 원시미술(Primitive Art)의 주제에 따른 원초적 의미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1) 자연물

주제	의미
사람	초현실적 힘의 희생물 두려움 극복
얼굴	물체에 영혼, 생명력을 주는 의미
손, 발	주술적인 힘의 상징, 희생의례의 상징
화살	성에 대한 상징 남성, 성기
짐승	동물의 번성, 식량자원, 빈도에 따른 친근함
뱀	거대한 재생, 풍요한 생산력
달	다산, 물, 여성성

27)

27) 최희경, 원시미술(Primitive Art)의 특성과 형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1, pp.18-20.

(2) 기하학적 문양

주제	의미
동심원	태양, 달, 지모신, 자궁, 여성의 가슴, 영원, 물(바다)비, 물의 파문
접동근무늬	우주의 원초적 힘, 생명력, 풍요로움
나선무늬	비를 가져오는 돌풍, 자연의 힘과 에너지
물결무늬	종류:나선무늬, 굽은 무늬, 가지무늬, 평행무늬등 물, 비, 강, 강물줄기, 여행길, 오두막등 자연의 영원한 움직임 상징

28)

원시미술의 주제는 사람들이 물과 산 각종 짐승과 식물 등의 계절의 변화에 따른 소멸과 재생, 해, 달, 별 등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순환체계와 질서에 대한 철저한 인식은 물론이고 자연현상의 경이로움과 자연이 주는 혜택을 이용하고 자연의 힘에 조상의 힘을 더하여 공동체 삶을 꾸리는 원동력으로 삼아 조상 숭배와 후손에 대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 달라는 삶과 죽음의 관념체계를 투사하여 그 나름의 상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현대의 body painting을 표현함에 있어 많이 되색되었으나 의식 저변의 느낌은 여전히 과거의 추상적 의미를 정서적으로 영향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6) body painting의 기법 및 재료

28) 최희경, 위의 책, pp.21-23.

(1) body painting의 기법

기법	방법
그라데이션	점층적, 점이(漸移)색감의 유연한 연동된 변화를 말하며 이는 작품의 입체가 부여
점각(점묘)	점을 찍는 의미로 붓이나 스펀지를 이용하여 신체에 표현한다. 회화적 느낌이 느껴진다.
붓 터치	회화적 느낌으로 붓의 터치를 의도적으로 표현한다.
드리핑	폴록의 뿌리기 기법처럼 모델의 몸에 오토마티즘적인 느낌으로 표현한다. 회화적 느낌이 느껴진다.
스텐실	원본에 공판처럼 형을 잘라 내고 그 안을 채우는 형식으로 효과적표현이다.
에어부러쉬	공기압에 의한 물감을 분사하는 형식의 표현 기법으로 매끄러운 표현에 적합하다.
드라이 부러쉬	물감을 붓에 묻힌 후 다시 제거 하여 붓에 남은 물감으로 표현한다. 가벼운 질감 표현이 나타난다.
스کم블링	물감을 적당히 닦아낸 후 이미 칠한 부위에 등글리며 칠한다. 1차 색조와 자연스럽게 혼합된다.
기타	해칭기법, 스크레칭 기법, 스템기법등 아티스트의 감성이나 의도에 따라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나타내 수 있다.

(2) body painting의 products

제품	방법
아쿠아 칼라	‘water color’라고도 함, 물계 개어 사용함. 오랜 시간 보관용이, 그라데이션 표현 용이, 발색력 좋음, 건조시간 빠름. 교육용으로 선호
아쿠아 크림	크림형태의 수성물감, 물에 섞지 않아도 됨, 높은 발색력, 스피디한 작업 선명도의 지속, 질감 표현에 효과적
아쿠아 렐	액체타입, 흔들어 내용물 섞은 후 사용, 라인이나 선등 악센트를 넣거나 섬세한 부분 묘사할 때 사용
유성물감	유성 베이스, 지울 때 클렌저 이용, 부드러운 색감, 낮은 지속성, 동일계열의 파우더 마무리
형광물감	UV광인 블랙라이트에 발광하는 특수물감, 형광 아쿠아칼라, 형광 아쿠아크림, 형광 아쿠아렐, 형광펜슬, 형광스프레이, 형광 헤어젤 등이 있다.
기타	머드, 석고, 헤나. 리퀴드 메이크업, 인조보석, 아이프로 플라스틱, 인조속눈썹등

29)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며 작가가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인체에 직접 도포되어 표현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려는 제품이 인체에 무해한지를 반드시 검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9) 이화순·김자애·채송화, The Art of Makeup. 서울:형설출판사, 2003,p.42-47.

Ⅲ. body painting의 교육적 가치

1. body painting의 예술적 가치

body painting은 직접적이고 신체성이라는 것에 의미를 가진다. 몸에 물감을 묻히는 작업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내면이나 숨결 같은 것을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생명력이 느껴지는 작업을 통해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인간의 생각을 몸으로써 표현하는 방식인 것이다. body painting은 어느 예술작품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선과 면의 조합으로 인체에 표현하는 예술이다. 이는 평면에서 작업하는 미술의 관념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예술 분야이다.

body painting은 아무렇게나 몸에 표현하는 것이 아닌 신체의 구조이해, 디자인 감각, 색채 등 디자인의 기초지식을 알아야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body painting은 일반적으로 화폭에 그리는 평면적인 그림과는 달리 곡선과 면, 골격 등으로 이루어진 입체적인 몸 위에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체의 해부학적인 면이나 골격구조, 피부의 특성 등을 먼저 파악한 뒤 입체적인 형태와 구조에 따라 디자인을 하고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려 자신의 작품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³⁰⁾

이미 입체라는 인체위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퍼포먼스라는 미술적 활동이 될 수 있고 평면이 아닌 3차원적 미술 표현을 통하여 그림이라는 자유로움과 함께 적극적인 그들 스스로 만든 미술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그들 안에 있는 또 다른 창조적인 생각들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이미 생각의 틀을 벗어난 예술성이 유감없이 발휘 된다. 더불어 입체에 따라 변하

30) 한국메이크업분장예술가협회, MAQUILLAGE, 1999,3월 창간호, p.17.

는 형을 느끼게 되고 지식으로가 아닌 경험으로 공간감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교육적 가치를 가진다. 이로서 현대 교육에서 바라는 인성이 강조된 창의성교육에 적절한 미술 교육이 될 수 있다.

기대되는 효과는 정서적 부분이다. 이 작업을 서로의 신체에 직접 painting을 하는 행위로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아프리카의 Wodabe집단의 소년처럼 서로의 이성유혹이라는 목적 달성을 기원하며 서로의 몸에 painting을 해주듯, 아프리카의 Guinea 지역의 소녀들처럼 서로가 painting된 몸으로 성인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했듯이 서로의 몸에 painting을 해 주면서 느끼는 정서적 교감 또는 일치감은 협동보다 경쟁심을 먼저 습득하는 이시대의 한국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다 생각한다.

1) body painting의 미술사적 가치

body painting의 등장은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인류의 발생과 함께 하고 있다. 미술의 기원을 인류발생의 시점으로 본다면 또 다른 시간에서 body painting의 기원 또한 같은 시점, 같은 시기에 같은 시간 그 뿌리를 갖는다. 이미 원시시대의 의식이 퍼포먼스의 기원이 된 것처럼 이미 우리의 미술적 테두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 신체를 오랫동안 미술의 중심주제로 자리 잡게 한 미학적 특은 서양미술의 역사 속에서 예술이라는 범주의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body painting의 미술사적 가치는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았지만 여러 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 다다이즘적 접근

다다이즘의 정신사적 의의는 허무주의에서 비롯된 무(無)의 정신이다. 1차 세계 대전 후 전쟁에 대한 증오, 물질주의에 대한 증오로 기존 질서들의 야유와 풍자적 눈으로 보기 시작하였으며 다다이스트들은 모든 것을 부정하고 예술 또는 원점으로 환원시킴으로써 비로소 진실 된 예술이 탄생된다고 믿었다. 다다이즘이 갖는 특징의 핵심은 이성에 근거를 둔 모든 기조 가치와 예술상을 철저히

부정하고 파괴하는데 있다. 이들은 합리주의에서 비롯한 이성의 우위와 전통과 권위 등 이제까지의 모든 기성 가치관을 부정하였고 그때까지의 정신적 질서를 포기하고 새로운 질서를 찾으려 했다. 이로서 인간의 감성을 자유로이 해방시켜 억압되었던 감성을 본연의 자세로 되돌려놓는다 믿었다. 기존의 갤러리나 캔버스에서 벗어나 반 예술을 선언하게 된다. 다다이스트들이 탈 캔버스 작품에 바탕을 이루게 된다. 다다의 발달로 모방의 대상이 되었던 신체가 적극적으로 미술이라는 영역 안에 합류하게 되었고

더 이상 대상을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작가로 하여금 그 신체라는 물질성이 강조되면서 재료의 본질 개념에 일대 변형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대상을 찾음으로써 예술과 생활의 동일화를 이루게 되고 제한된 특 개념을 벗어남으로써 새로운 공간 개념을 창조하게 된다. 신체를 이용한 살아있는 몸짓과 신체를 이용한 표현과 신체의 의도적 painting 등 body art의 모체가 되고 있다. 70년대를 정점으로 하는 body art는 사실상 현재의 20세기 전체에 이어서는 신체미술의 일종의 매듭인 동시에 신체미술의 시작이자 미술사적 바탕이 된다.

(2) 개념미술적 접근

미술에서 개념의 우위성을 자각적으로 주장한 것은 20세기 초 뒤샹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더 포괄적인 맥락에서 ‘물질에 대한 개념의 우월성’에 대한 추구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근대 독일에 이르는 관념주의 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31) 미술에 있어서 ‘개념적(conceptual)’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땅히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 것까지를 묘사하는 재현방식을 지칭해 왔다. 현대미술에서 아이디어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전통미술의 물리적 면모를 거부하려는 다다의 입장과 평행된다.

1960년대 중반에 등장한 개념주의적인 경향 속에서 미술가들은 미술은 미술가와 관람자의 정신 속에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미술관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미

31) 최동희, 김영철, 신일철, 윤사순, 철학개론, 서울:고려대학교 출판부, 1980, p.48.

술계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대안을 추구하면서 관람자에게 미술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정신적인 참여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미술이 수집과 소유의 대상이 아닌 미술에서의 의사소통(communication)에 의미를 두었다. 그리하여 개념 미술가들은 미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전달할 매체로 서면형식, 사진, 기록문, 도표, 지도, 영화, 비디오와 작가자신의 신체, 그리고 언어 등을 활용하여서 전통적인 미술 영역을 벗어난 다양한 작업을 시도하였다. 사회적, 환경적, 지적인 광범위한 관심들에 미술활동을 연관시키면서 다양한 작업양상을 전개하게 되었고 body art도 그러한 형식 중 하나이다. 전통적 미술에서 대상성을 벗어나 자신의 신체를 대상화하는 형태인 것이다. painting된 신체적 개념의 표현, 또는 신체의 행동과 연관된 많은 표현들이 작가의 개념의 미술적 방법으로 관람자와 communication하는 것이다. 관람자와 작품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body art에서는 행위자의 우연과 즉흥이 다채로운 결과를 유발하며, 관람자는 미술가의 전재를 작품 속에서 깊이 인식하게 된다. 이로서 감상자를 작품에 직접 연결시킴으로써 예술 장르 간, 예술과 삶 사이의 간격을 없애고, 동반의식을 유도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개념미술의 표현의 양식으로서의 body art는 body painting의 모체가 되고 있으며 신체미술의 미술사적 가치를 다시하면 확인시켜주고 있다.

(3) 수퍼리얼리즘적 접근

수퍼리얼리즘이란 용어는 ‘아트 매거진(Art Magazine)’지에서 이 주제를 취급한 특별 논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여진 데서 탄생한 것이다.³²⁾ 수퍼리얼리즘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포착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의 현실을 대상으로 하고 사진의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낭만적 표현이 억제된 차가운 중성적 화면이 나타나는 것이 그 특징이다. 평면이나 입체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여 최대한 현실에 가까운 극사실적 현실모방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감정적인 인간의 시각 ’

32) 박덕철, 수퍼리얼리즘의 시대적 배경과 그 의의, 석사청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4, p.4

눈‘이 보다는 냉철하고 객관적인 기계적 시선’ 카메라‘적 관심으로 작품이 이루어지고 있다.

입체의 작품에는 일물의 땀구멍이나 솜털, 모세혈관계지 표현되어 있으며 종기나 상처까지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인물의 복장이나 스타킹은 모두 실제의 상품이고 시계마저도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 비평가들로부터 이 작품은 현대의 전형적인 인간상이 표현되고 있으며 물질문명과 소비 사회에 대한 예리한 비판이 담겨져 있을 뿐 아니라 생활과 예술 사이에 존재하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 작품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그러나 그 작품이 어떠한 평을 듣더라도 결국은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모방예술이다.

body painting의 표현도 현대인의 모방을 옮겨놓은 형식을 취해 표현한 작품들이 있다. 피부에 painting을 하여 의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여인의 주름치마나 남성의 넥타이등 정형적 현대인의 일상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 또한 실존하는 현대인을 재현한 모방예술이다.

2) 퍼포먼스 와 body painting

퍼포먼스는 실행, 연기, 연주 등의 어학 사전적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회화나 조각 등이 전통적인 장르개념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표현 욕구를 신체 그 자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신체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신체예술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해프닝 또는 이벤트라 불리기도 하였으나³³⁾ 점차 퍼포먼스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퍼포먼스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하여 감상자에게 전달하고자하는 메시지를 행위자가 행하는 것이다. 즉 퍼포먼스는 행위자나 작가가 관객 앞에서 혹은 관객과 함께 하는 실체 행위를 매개체로 하여 의사 전달을 하는 것으로 이는 모든 예술의 장르를 다 포함한 가장 열린 예술이라 말 할 수 있으며 틀을 거부하는 자유로운 의식의 발상이라 할 수 있다.

33) 전경희, 해프닝, 서울:열화당, 1993, p.11.

퍼포먼스는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예술 세계를 몸을 빌어 표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바디 페인팅과 유사하다. 그러한 퍼포먼스는 기타 소품등과의 조화와 활용을 통한 행동이나 행위자체에서 나오는 동작 하나하나에 의미가 부여되고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몸 자체가 주제가 되는 것이고 body painting은 작가에게 있어서 평면이 아닌 몸을 빌어 표현을 하는 것으로 몸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는 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작가가 생각한 예술 세계를 표현함에 있어 표현의 한계가 있다.

퍼포먼스는 관객의 참여를 중요시 하며 관객이 없는 이들의 행위는 완성되지 않는다. body painting은 주어진 공간 안에서 작가가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작가 스스로가 혹은 모델이 대신하여 연기 혹은 행위 하는 것이다. 행위가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모델의 몸에 그려져 있는 혹은 칠해져 있는 painting과 동작 그리고 다른 매개체에 의하여 더욱 분명하게 전달되어진다. 또한 그것을 관람하고 호응해 주는 관객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body painting과 퍼포먼스는 서로 아주 적절히 조화되는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체예술에 있어서의 painting이란 작가가 의도한 그 무엇인가를 표현하는데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다. 퍼포먼스를 할 경우 어떠한 주제가 삶과 죽음을 표현할 경우 얼굴에는 흰색을 칠하고 몸에는 흰색과 검은 색으로 죽음을 맞는 그 무엇을 그림을 그렸다면 행위자체 만으로 이하하기 힘든 예술성을 한층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작가와 관객과의 다리 역할은 물론이고 그 행위 자체에 몰입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조형요소 중에 하나인 색에 있어서도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굳이 강한 몸짓이나 수품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느낌을 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관객들로 하여금 시선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듯 body painting이란 퍼포먼스에 있어 여러 가지 조형성을 제시하고 그 조형성에 따라 느낌과 표현의 확실성을 증대 시키며 이로서 행위자가 의도한 communication이 보다 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양자간의 또 다른 형태의 언어라 할 수 있다.

2. body painting의 정서적 가치

1) 청소년 정서의 이론적 고찰

(1) 정서

현대 사회는 사회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 인가관계가 더욱 필요한 시대이다.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의 느낌, 감정을 이해해야하므로, 인간의 정서적 능력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는 대부분 인지능력에만 관심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정서에 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정서란 무엇인가? 정서의 어원을 보면, 라틴어의에서 'emovere'나온 말로 는 'e' 밖으로란 뜻이며, 'movere'는 '움직인다'라는 뜻 이다. 따라서 정서는 밖으로 움직여 나간다는 뜻이며, 개체의 격동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정서의 개념이나 종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정서에 대한 정의를 쉽게 내리기 힘들다. 가령, 사전적 의미의 정서는 유기체가 내외의 자극에 직면하여 인지적, 생리적 행동적으로 반응하는 발생적 또는 획득적인 동기 성향을 일컬으며, 슬픔, 기쁨, 혐오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또한 정서를 여러 가지 기본적 욕구를 나타내는 폐쇄적인 성숙 발달의 종합적인 결과로 보았으며, 정서는 질적인 측면이며, 약간의 흥미에서부터 외현적 반응, 미세한 불쾌감부터 분노, 쾌-불쾌정도 등과 같은 정서의 수준을 척도로 나타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정서적 사건들은 모든 인간이 활동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서에 관한 정의를 할 때는 인간 행동과는 다른 측면이나 독립적으로 정의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렇듯, 정서를 쉽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관점에 따라 첫째는 일반적인 정서적 의미로 예를 들어, 분노, 자만심, 즐거움, 슬픔, 사랑, 죄책감 등을 통틀어 정서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모호한 관점에서의 정서이다. 모호한 관점이란 정서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얼굴이 빨개져졌다면, 우리는 이 사람이 현재, 화났거나, 즐겁거나, 아니면 다른 정서 상

태에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를 정서 신드롬, 정서 스키마, 정서 상태, 정서 반응이라 한다.

(2) 사회성

사회성이란 인간이 혼자서는 외롭게 살 수 없으며, 남과 어울려 서로 돕고 사랑과 정을 나누는 사회관계 양식을 말한다. 즉 다른 사람들과 사귄 수 있는 능력 또는 개체의 사회 적응성, 대인관계의 원만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성은 인관관계를 통하여 나타나고 발달하는 것이다. 한편,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동, 즉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행동양식을 사회적 행동이라고 한다. 사회적 행동은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학습하게 되는 행동으로 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감정 등을 포함하는 행동이다.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 즉, 사회성이란 한 개인이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나 집단 성향을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개인이 조화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갈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개인으로 발달해 가는 과정으로 정의 한다.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사회라는 환경을 부여받으며 누구든지 사회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출생 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가 그가 속한 사회에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행동, 가치관, 지식 등을 습득하게 하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화란 개인으로 하여금 그 사회에서 공인되고 요구되는 언어, 사고, 감정 행동의 제 양식을 습득하게 하여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의 과정이다³⁴⁾

사회성이란 사회적 행동이 내면화된 것이며 이것은 후천적으로 교육에 의한 경험으로 습득한 사회적 습관이거나, 나아가 사회적 행동의 근본적 기능이 되는 것이다. 사회성이 높을수록 학급이나 집단에서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새로운 환

34) 박용현, 인간의 사회화와 교육 현대 교육론(Ⅰ) 교육의 구조,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pp.82-87

경에 접했을 때에도 잘 적응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 아동기 삶의 경험은 발달의 수준과 과정이 있으며 긍정적, 부정적인 경험이 함께 혼재한다. 또한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사회적 상황에 대한 반응을 어떠했느냐에 따라 사회적 상황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영유아기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으로 발전하게 되며, 영유아기와 아동기 초기의 발달단계는 후일성장과정에서의 성공적인 사회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본이 된다.³⁵⁾

사회성의 기본 개념을 대인간의 유일한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아동기의 사회성 형성이 성인이 되었을 때 중요한 정서적 기초를 형성한다고 설명함으로써, 사회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 창의성

창의성이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한 대답은 학파나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기 때문에 하나로 일치되기는 힘들다. 다시 말해, 창의성이란 어렵고 복잡하며, 다면적인 특성을 띠고 있고, 인간의 가장 높은 수준의 수행과 성취이기 때문에 하나로 정의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창의성에 관한 정의들을 근거로 몇 가지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게슈탈트(Gestalt) 심리학파를 기초로, 인지심리학에서 다루는 지각(perception)과 인지(cognition)를 중심으로 창의성을 정의한다. 이 관점에서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재구성하거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조화시켜서 새롭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창의성은 인지적 능력임을 시사한다.³⁶⁾ 대표적으로 Gilford(1967)는 ‘지능구조모델’을 소개하면서 그 모델의 한 부분인 확산적 사고를 창의성의 기본이 되는 사고유형으로 보고, “창의성이란 새롭고 신기한 것을 낳는 힘”이라고 정의했다.

둘째는 인본주의나 정신분석학파를 토대로 창의성은 인지능력이라는 주장을

35) 김명희, 아동의 사회성 교수 기법, 서울:교육과학사, 1998, pp.46-47.

36) 김남성, 교육심리학, 서울:교육과학사, 1998, p.53.

거부하고, 정의적 측면인 성격, 내적 경험 등을 중심으로 창의성의 정의를 내린다. 여기서는 지능이 높다고 할지라도 창의적 성향이 없으면, 창의적 산물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즉, 창의성에는 사물에 대한 깊은 관심과 흥미 판단에 대한 자율성 및 독립성, 자기표현에 관한 강한 의욕 및 동기, 통제의 태도,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 문제에 대한 도전성 및 모험심, 문제해결을 위한 인내심 등을 포함시켜야한다. 또한, 개인의 잠재력을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발휘되는 내재적이고, 주관적인 힘을 길러주는 것이 창의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창의성이란 하나의 새로운 결과를 야기하는 행동의 출현이며, 개인의 특성과 그 개인을 둘러싼 사건, 사람, 자료, 생활 및 여러 상황 등에서 생성되는 과정”이라고 했고, 이러한 과정을 찾는 동기가 자아실현의 경향성이라고 하였다.

셋째는 인지적 과정에 중점을 두어 창의성을 설명할 수 있다. Taylor(1988)는 “창의성이란 곤란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가설을 세워 검증하며, 그 결과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창의성은 깊게 파고, 실수를 감수하고, 고양이에게 말을 걸어보고, 깊은 물 속에도 들어가고, 잠긴 문 밖으로도 나올 수 있으며, 태양에 플러그를 꽂는 것”이라고 하면서 창의성이란 그만큼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즉, 새롭고 기발한 것을 생각해 내고, 행동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사고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에 도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의성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창의성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다. 창의성이란, 모방이나 재연이 아니라, 새롭고 독특해야하며, 또, 단순히 새롭고 독특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나 효과 면에서도 현실적으로 적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창의성이나 인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현재 전문가 집단에 의해 새롭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된 개인의 아이디어나 산물을 생산해 내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³⁷⁾. 또한, 창의성은 예술이나, 과학, 그리고, 그 외의

37) 문정화, 하종덕, 또 하나의 교육 창의성, 서울:학지사, 1999, pp.29-34.

영역에 따라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창의성은 영역 특수적이라고 하였다.

(4) 대인관계성향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는 개인 및 사회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인간 실존의 본질적 측면이자 필연적인 사실이다. 인간이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사는 것은 삶의 본래적 특성이다. 각 개인에 따라서 양적, 질적인 개인차는 있지만,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므로, 결국 인간의 생활자체가 바로 대인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성격적 특성, 대인관계성향, 일하는 특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등에서 각각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형태들은 개인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며, 이 중 대인관계는 개인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대인관계란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 되었는가? Heider(1964)는 대인관계란 개인이 타인을 대하는 보편적인 심리 지향성이며, 내적인 특성과 외적인 행동 간의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즉, 개인이 타인에 의해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반응하며 어떻게 타인을 지각하고 그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가, 타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가에 대한 심리 지향적인 양식이라고 하였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따라서 대인관계는 태어나면서부터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형성되며, 또한, 대인관계는 ‘나’와 ‘너’의 상호작용의 만남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타인의 성격 특성과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 성숙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필수조건이라고 언급하였다.³⁸⁾ 이렇듯, 대인관계는 인간의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20세기 초기부터 많은 학자들이 개인의 성격 특성과 개인차 연구와 더불어 대인관계 연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대인관계를 연구해온 학자 및 이론들을 정리해 보면, 인본주의, 형태주의, 신 프로이드 관점 등 세 가지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38) 송인섭 외, 대인관계성향 적절성과 성향 검사의 타당도 연구, 교육심리연구.13(1), 1999, pp.447-467.

첫째,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대인관계를 어떤 체계는 없지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각의 차이가 대인관계 양상을 결정짓는다고 파악하고, 대인관계의 효용성 또는 적절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Maslow(1954)와 Rogers(1961)는 대인관계 목적 및 기능을 적응, 자기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 자아실현의 도모로 간주하였고, 개인의 이타성과 자아실현 및 사회적응은 대인관계의 적절성에 따른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 노출을 강조하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대인관계의 관건이 되고 있는 바, 개인적인 의사소통은 애정의 충족, 성장, 가치추구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둘째, 형태주의에서는 의 형평이론을 중심으로 대인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의 대면 관계와 세 사람간의 삼자 관계에서의 형평의 추구를 대인관계의 목적으로 보았으며, 타인의 행동에 대한 지각에 의존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사람의 의도는 개인적 인과관계의 귀인에 핵심이 되며, 개인은 사회화됨에 따라 각각의 발달 수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단위 형성은 소속의 성질을 의미하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정적인 감정을 지니는지, 부적인 감정을 지니는지는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고, 이의 기초는 생활의장에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대인관계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것은 신 프로이드학파(N대-Freudian)이며 이들은 본능설과는 달리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으로 사회, 문화적 요인 특히,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에 주목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성격의 형성은 대인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문화적 소산이라고 하였다.

(5)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이론가들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Rosenberg와 Rosenberg(1978)는 자아존중감을 한 개인이 자신에 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의 차원에서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을 개인이 자기 자신에 중요하고 유능하며 성공적이고 가치가 있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과 혼동되는 개념으로 자아개념(self-concept)이 있다. 자아개념은 자신의 외모, 특성, 행동양식에 대한 묘사를 의미한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특성에 대한 기술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포함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의 특성과 낮은 자아존중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의 특성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자기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한다고 생각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에 주목하고 그것을 강조하게 되므로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학업이나 사회적 활동에서 성공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토론에서 자기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발표하고, 사회 생활에 협동적이며, 타인의 비판에도 크게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며, 파괴적인 면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대외적인 활동에서도 창조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판단과 능력을 믿으며, 지도자적 역할을 한다고 한다.

둘째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의 특성으로는 사회인식을 타인들의 행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즉각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사회 인식에 문제를 갖는다고 지적한다.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자기 평가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자기를 무가치한 인물로 보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우울해지며 소극적인 행동을 보인다. 또한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결함이나 약점, 좋지 못한 자질에 주목하고 그것을 강조한다. 이런 청소년은 사회활동에서 집단에 참여하지 않고, 절망적이고, 억압되어 소심하며, 자신의 판단과 능력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또한 집단 토론에서도 단지 듣고만 있을 뿐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며, 타인의 비판에 쉽사리 기가 죽고, 감정적인 문제에 사로잡히거나 자기중심적이다. 이들은 사회적 접촉을 갈망하지만 이를 실천하지 못하며 오히려 서투르게 시도하다가 친근하게 되기보다는 친구

들로부터 더 멀리 소외되는 수가 많다. 자아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확립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정적 관점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며, 자신의 가치와 성공감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도 인식하지 못하는 반사회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하였다.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인간관계도 원만하여 남에게 베풀 줄도 알고, 인정할 줄도 알며, 도움을 받을 줄도 알게 되어, 매사에 자신감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긍정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교육의 성공은 학생들에게 자아존중감을 심어 주는 데 있다.

2)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

먼저 body painting의 교육으로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보다 넓은 개념인 body art에 대한 미술사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더 나아가 신체장식으로의 역사와 의미, 그 실제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리고 body painting의 기원과 색의 의미 그리고 예술적 가치를 확인하였고 body painting의 예술적 가치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body painting이 유래가 인류의 본능에서 시작된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행위 자체가 체험자에게 정서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body painting이 이루어 졌을 때 사회성과 대인관계, 학교 적응력, 자아존중감, 창의력의 중심으로 정서 변화를 예상해 보았다.

1. body painting의 체험은 사회성과 대인관계가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된다. 가설의 근거를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델과 1:1로 이루어 작업을 함으로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둘째,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편안함이 또한 친구간의 대인관계의 향상을 가져다준다.

셋째, 불쾌할 수 있는 물질화의 개념으로 모델을 대함에 있어 미안함과 그림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모델의 배려로 사회성 향상 가져오게 된다.

넷째, 사진 자료기록을 위해 모델친구가 불편한 자세도 감수하면서 열심히 도와주는 모습에서 서로에게 감동하게 되고 이로서 서로에게 사회성을 학습하고 대인관계의 향상을 볼 수 있다.

다섯째, 자신의 신체가 아닌 친구의 신체를 빌려 작업을 하면서 더욱 신중해지고 친구를 배려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소중함을 느끼게 됨으로 대인관계가 향상된다.

2. body painting의 체험은 청소년의 학교 적응력에도 도움을 준다.

청소년기의 특성 상 또래 집단의 의미는 매우 크고 또한 그 밖의 성적이나 가정 등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클 수밖에 없다. body painting의 체험으로 또래 친구와의 관계가 향상됨으로 학교생활에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될 것이고 따라서 body painting의 체험은 ‘친구’라는 요인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학교 적응력의 향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 학생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의 ‘스트레스’의 경우 근원적인 해결은 되지 못하겠지만 학생들이 힘겨워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체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기에 놀이와 같은 새로운 미술의 체험은 학생들의 정서적 순화에 도움을 주어 결론적으로 학교 적응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한다.

body painting의 체험이 학교 적응력의 향상을 가져다주는 이유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구와 대인관계가 향상되어 학교 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게 된다.

둘째, body painting의 체험 자체가 신기하고 즐거움을 주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3. body painting의 체험은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가져온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의 특징은 자기 평가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소극적인 행동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며, 타인의 비판에 쉽사리 기가 죽고, 감정적인 문제에 사로잡히거나 자기중심적이다 자신의 결함이나 약점, 좋지 못한 자질에 주목하고 그것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성향은 수업을 진행할 때 교과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미술 교과는 자신의 작품이 타인에게 노출이 되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미술 교과를 싫어하거나 흥미를 갖지 못하고 자신이 그림에 소질이 없어 수업자체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성향을 보인다. 그러한 이러한 학생에게 body painting의 체험은 좀더 즐거운, 적극적인 수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서 적극성과 긍정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body painting의 체험이 자아존중감의 향상의 근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소 소극적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즐겁게 참여하였다.

둘째,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하던 학생들이 1:1 체험을 진행하면서 모델에게 자신의 의견과 계획을 말하게 된다.

셋째, 자신의 작품을 가려가면서 작업을 하던 학생들이 놀이처럼 받아들이며 비교적 당당하게 작업을 하였고 자신의 작품 노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이 낮아진다.

4. body painting의 체험은 창의성이 향상시킨다. 그 원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경험이었던 신체에 채색하는 활동에 즐거워하며 구상에서 대범한 도전성과 개방성, 강한 자기표현의 의욕을 보였다.

둘째, 평면이 아닌 입체에 작업을 함으로 공간감이 향상되고 이로서 작품이나 사물을 보는 시각이 넓어진다.

셋째, 딱딱한 물체가 아닌 부드럽고 유연한 살아있는 skin의 작업을 함으로서 재료에 대한 사고의 확장을 가져온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body painting의 체험은 청소년의 정서적 변화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찌 보면 body painting은 우리나라의 정서상 다소 진보적인 수업의 주제가 될 수도 있으나 그 교육효과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의 미술의 모든 경계의 벽을 허물고 있다. 다양한 매체의 확장은 미술, 영화, 음악, 연극 등이 연계되게 되고 미술이라는 구분이 어렵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미술을 교육함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에 서있고 새로움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보를 요구한다. 미술은 아름다움의 추구와 정서의 순화라는 본질에 맞아야 하고, 학습자의 심리에 적합해야 하고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어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야 하며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고 시대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body painting은 이러한 예술적 본질에 접근하면서 정서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신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크며 오늘날에 와서는 이를 도구로 직접 행해지는 퍼포먼스 등 여러 가지 인체 예술이 등장하고 있다. 신체가 회화의 장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점차 body art에서 body painting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고 있다. body painting은 분장 예술의 한 장르로 다양한 조제와 여러 가지 기법, 독특한 연출을 할 수 있어 다른 문화 예술과의 접목이 가능하다. 이는 작가의 예술성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장르로서 다양한 창작성이 요구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작성과 더불어 조화와 통일감이 있어야만 주제가 돋보이고 작품이 돋보일 수 있다. 또한 body painting은 어느 예술 작품과도 견줄 수 없는 아름다운 선과 면의 조합으로 인체에 표현하는 ‘환타지 메이크업의 종합예술’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예술 분야임에도 아직까지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기의 body painting이란 생존경쟁에서 승리의 상처와 얼룩진 피가 감탄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장식설이나 몸에 상흔과 문신을 하여 적을 공포감에 몰아넣는 수단이 되는 보호설 같이 원시적인 형태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와 재료를 이용하여 인간의 몸을 이미지화 시켜 재구성 하는 것이었다. body painting이 신체미술로 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 매김을 하기 시작 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으나 도화지에 그림이나 조각 작품처럼 소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개념 미술적 접근으로 순간을 포착하는 짧은 생명력 때문에 더 매력을 발산하고 미술적 가치를 지닌다. 순간예술이라는 점이 body painting의 또 다른 매력이며 body art의 보조역할이 아닌 독립된 예술로서도 인정받는 것이다.

예술의 한 분야 인정받고 있는 행위예술은 몸짓 하나하나가 언어의 수단으로 작용하지만 그에 따른 전체적인 이미지도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인체에 행해지는

painting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퍼포먼스는 인간이 신체와 소품들을 이용해 현장에서 예술 행위를 하여 관중들과 직접 상호교감 할 수 있는 예술이며 이 점에 있어서는 body painting과 거의 유사하다고 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ody painting은 패션쇼, 순수회화, 광고 등의 예술분야에서 이미 중요한 동반자로 자리 매김 하였으며, 연극과 무용, 마임 극에서도 body painting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body painting의 교육적 가치를 확인하기 연구되었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body painting은 인류가 태동한 시기와 같이하여 오래된 역사적 근원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선사시대부터 인간이 자기를 보호하고 장식하고 표시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painting을 하였고 한 시대의 생활양식의 표현으로서 변천 과정의 겪었다.

셋째, 다다이즘 적 반 예술의 특성으로 탈 캔버스화의 모습을 보이며 개념 미술적 접근으로 행하여지는 순간의 미술적 표현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수퍼리얼리즘적 접근으로 현실을 모방함으로 보여 지는 비판적 사고까지 body painting의 예술적 가치를 찾아 볼 수 있다.

넷째, 현대에 표현되고 있는 body painting은 다른 여러 방향의 퍼포먼스나 공연의 형태로 자기의 의식과 개성을 표현하고 있고 그 표현 기법에서도 다각적 접근을 하고 있다.

다섯째, body painting의 고대 인류에서부터 내려오던 본능이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하여 체험자에게 정서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듯 body painting은 미술사적 가치와 예술적 영향, 정서적 영향까지 얻을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많이 내포하고 있었다.

교육이 제공할 수 있는 미적 교육, 정서교육, 창조교육, 개성교육의 측면과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생활 교육적인 측면을 보다 조화롭게 강조해야 하고 이러한 반면의 교육적 가치가 실현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의 교육과정이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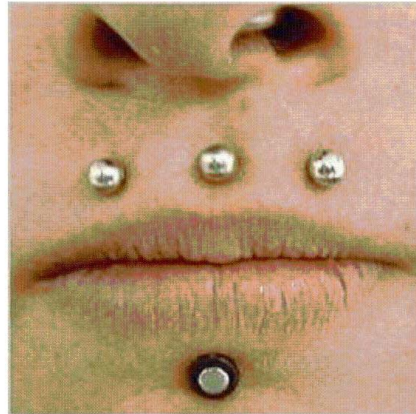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분위기나 흐름과 유린된 교육은 피 교육자에게 흥미와 관심을 잃게 하고 그 교육적 효과 면에서 필요성이 제고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가까이 느끼며 미가 존재하는 생활 전반을 교육의 장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미술에 쉽게 접근하면 그것은 결국 교육적으로 무리 없이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body painting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현실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피 교육자에게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이러한 생활 속의 미의 추구는 큰 발전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body paintin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늘날의 시대정신과 조형감각에 맞게 열려진 마음으로 교감의 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연구를 정리하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body painting의 교육적 가치가 연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치를 현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직접 체험을 하고 더 나아가 교육과정의 계발과 적용으로 새로운 수업과정으로 발전 연구 되고 더불어 정서적 영향이 수업적용에 의해 연구되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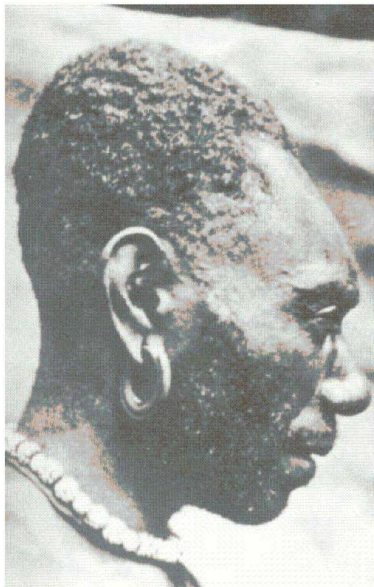
도 판



<그림1> 의식을 준비하는 뉴기니아의 추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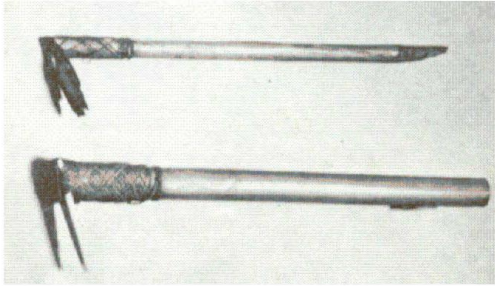
<그림2> 입술 주변에 한 피어싱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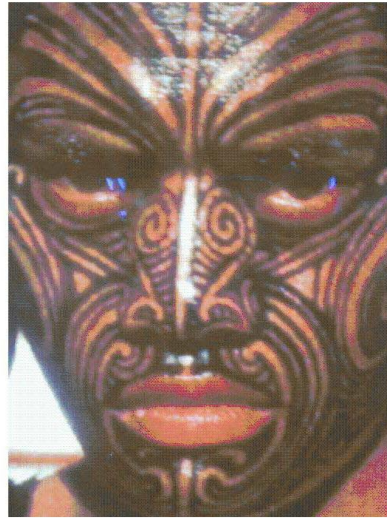
<그림3> 두 개골의 변형을 한 남성



<그림4> 허리에 한 단색의 용 문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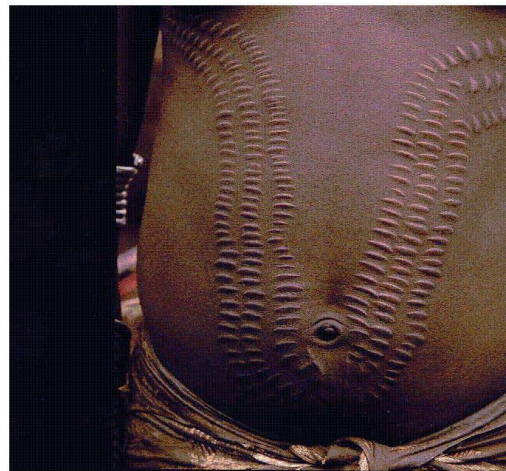
<그림5> 문신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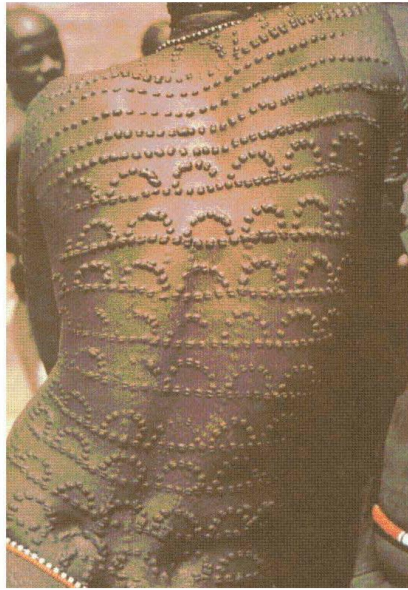
<그림6> 축제분장한 마오리족 추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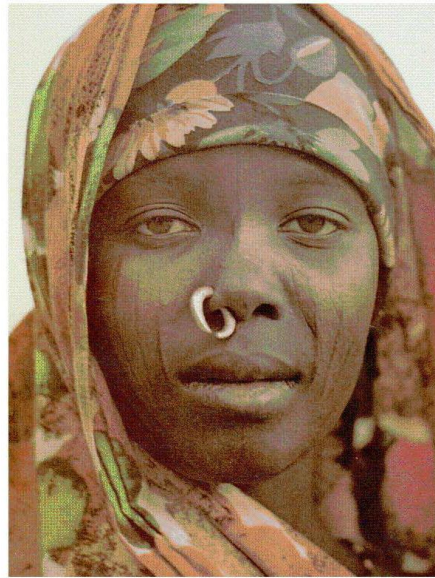
<그림7> 반흔 문신을 한 가나의 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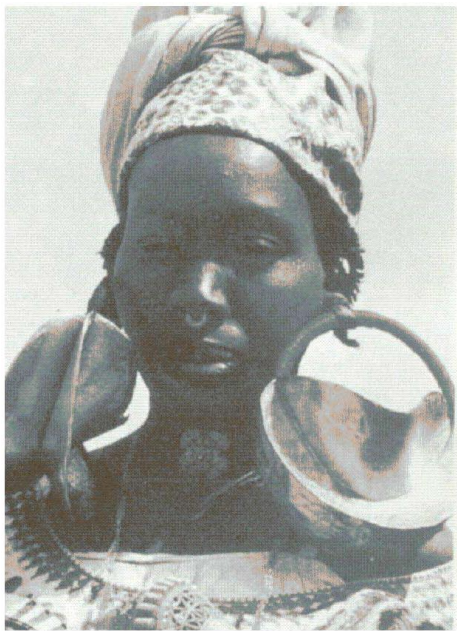
<그림8> 양각 패턴의 상흔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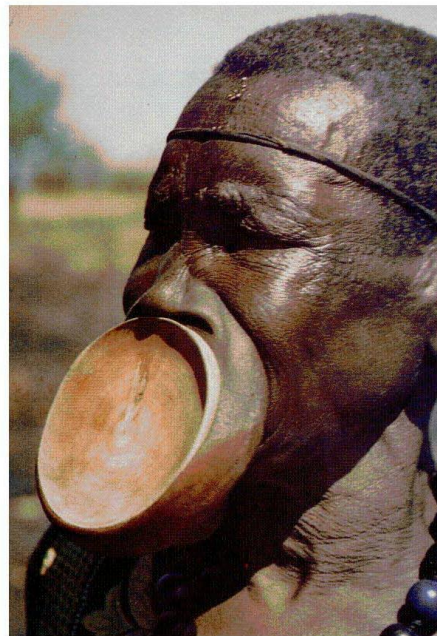
<그림9> 누비족 여인의 상흔



<그림10> 코에 피어싱을 한 카메룬 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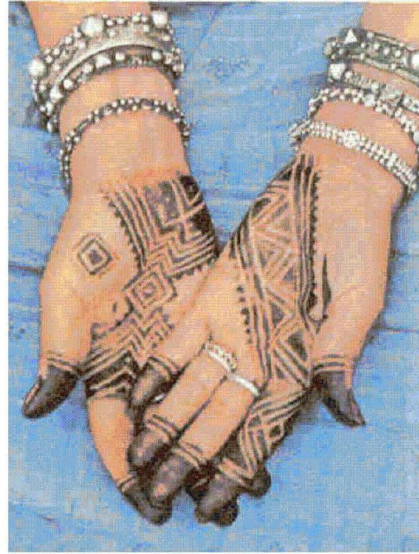
<그림11> 커다란 금 귀걸이를 한
풀라니 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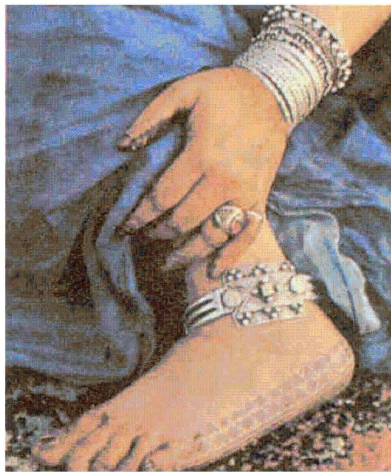
<그림12> lip-pluge를 한 차드의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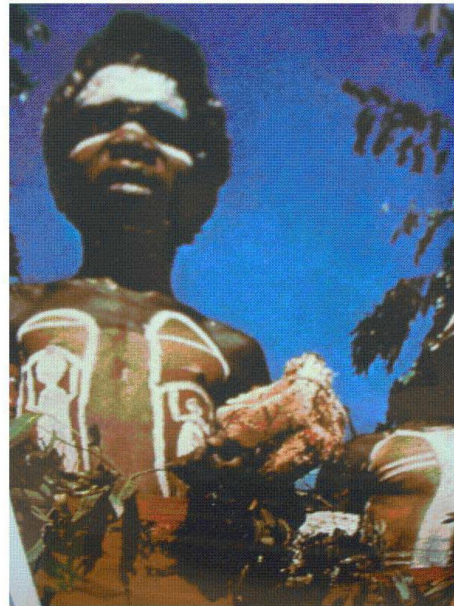
<그림13> 코에 투구벌레의 뿔을
장식한 뉴기니아인



<그림14> 손에 장식한 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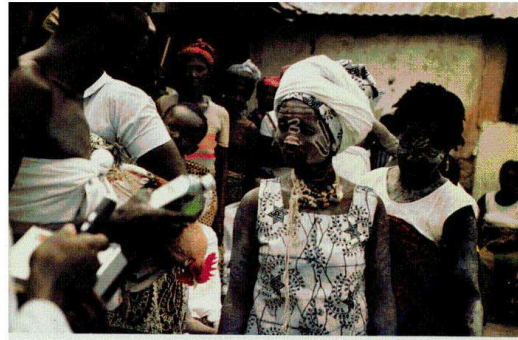
<그림15> 발에 장식된 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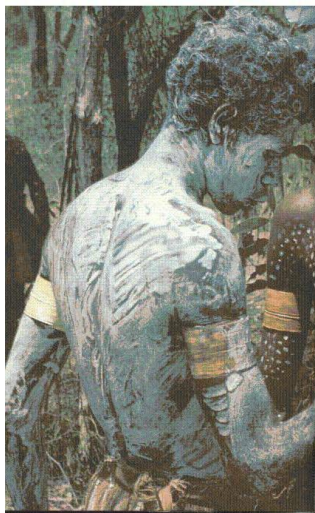
<그림16> 의식에 참석하기 위한 신체장식



<그림17> 환박이 타투를 한 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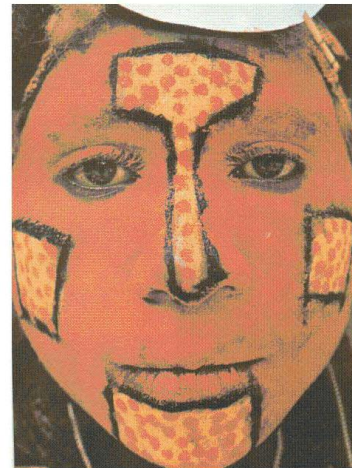
<그림18> 흰 진흙으로얼굴을 채색한 가나의 무당



<그림19> 흰색의 채색을 한 오스트리아 원주민



<그림20> 가부키 분장을 한 여인



<그림21> 다산과 밝음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채색



<그림22> 상징적 색을 사용하는 중국의 경극



<그림23> green색의 축제연극 분장



<그림24> 한국축구 응원단 붉은 악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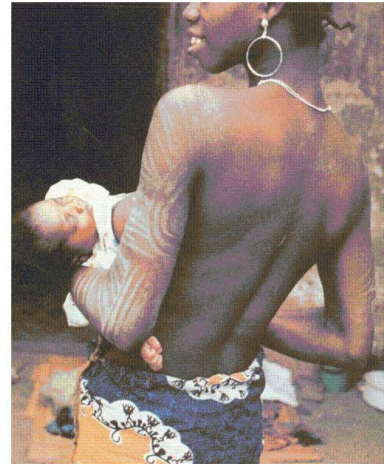
<그림25> 치장을 하는 나이지리아의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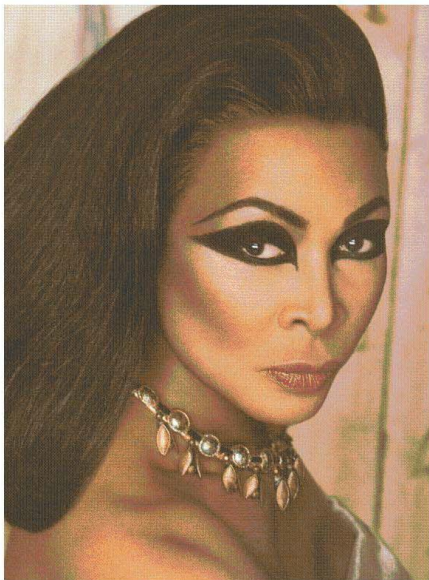
<그림26> 누바 수단의
노란색 분장하는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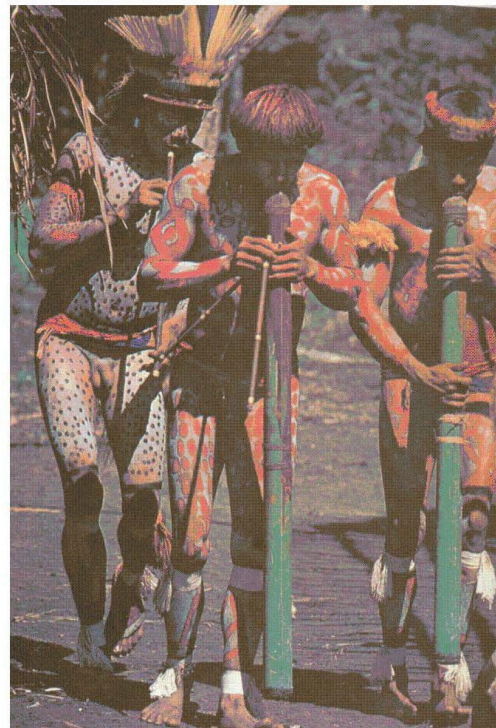
<그림27> 보호의미의 문자
장식을 한 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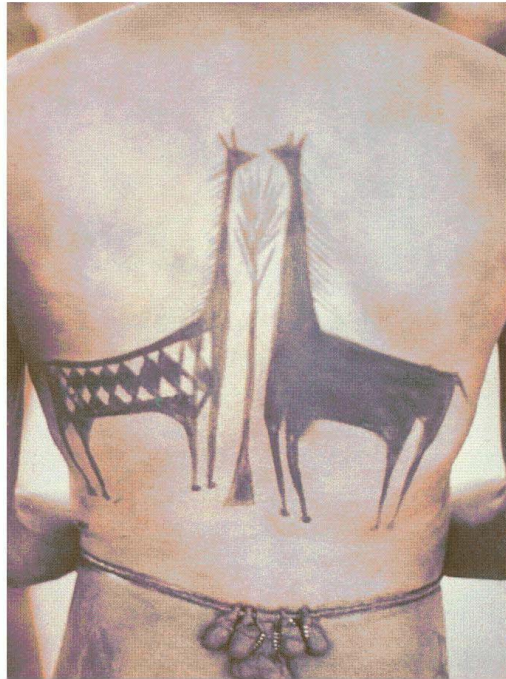
<그림28> 진흙으로
그림을 그린 아샤르 여인과 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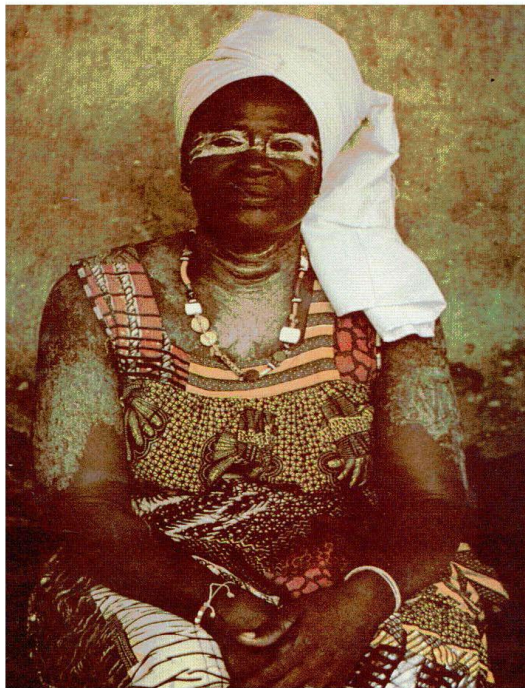
<그림29>이집트 여인의 화장



<그림30> 나이를 상징하는 신체 장식



<그림31>누바의 기린을 그린 신체장식



<그림32> 영적인 세계를 보려는 목적의 눈 장식

참고목록

<국내서적>

- 김희숙. 화장문화사. 서울:청구문화사, 2000
- 전규태. 마지막 원시인. 서울:백문사, 1992
- 전완길. 한국화장문화사. 서울:열화당, 1999
- 배대운. 한국인의 문신. 서울:배신경정신과의원, 1990
- 홍명섭, 전환기의 현대미술, 서울:술학술총서, 1991
- Victoria Ebin, 임숙자 역, 신체장식, 서울:경춘사, 1988.
- 이유경 외3역, 복식사회심리학, 서울:경춘사, 1992.
- 김 정, 미술 교육학 원론, 서울:예경, 1998,
- 이영환, 서양미술사, 서울:평화당, 1988.
- 김경희, 정서란 무엇인가. 서울:민음사, 1995.
- 박용현. 인간의 사회화와 교육 현대 교육론(I) 교육의 구조,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 송인섭 외, 대인관계성향 적절성과 성향 검사의 타당도 연구, 교육심리연구.13(1), 1999.
- 김명희, 아동의 사회성 교수 기법, 서울:교육과학사, 1998,
- 김남성, 교육심리학, 서울:교육과학사, 1998,
- 문정화, 하종덕, 또 하나의 교육 창의성, 서울:학지사, 1999,
- 두산동아백과사전연구소 편저.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제10권. 서울:두산동아, 1996
- 브리태니커대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93,
- 강대희, 현대미술의 문맥읽기, 서울 : 미진사. 1998
- 이화여대출판부, 몸과 미술, 서울 : 한림미술관, 이화여대 기호학연구소 1994.
- 최동희, 김영철, 신일철, 윤사순, 철학개론, 서울:고려대학교 출판부, 1980.
- 전경희, 해프닝, 서울:열화당, 1993.

이화순·김자애·채송화, The Art of Makeup.서울:형설출판사, 2003.

전경희, 해프닝, 서울:열화당, 1993.

<학위논문>

이영경, 아프리카 원시문양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4.

최희경, 원시미술(Primitive Art)의 특성과 형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1.

박덕철, 수퍼리얼리즘의 시대적 배경과 그 의의,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4.

<외국서적>

Karl Groning, Decorated Skin, New york:Thames and Hudson, 1997.

Nancy Etcoff, Survival of the prettiest, Doubleday, 1999.

Rufus C. Camphausen, Return of tribal, Park Streer Press, 1997.

Alpha Latzke, Helen p. Hostter, The Wide work of Clothing, New york:The Ronald press Company. 1967.

Blanch Payne, History of Costume, New york:Happer & Row Publishers. 1965.

Mary Lou Rosencranz, Clothing Concept,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72.

Faris,J.C., Nuba Personal Art, London, Duckworth, 1972.

ABSTRACT

The study of educational value of Body Painting

by Seol Hyun Jin
Department of The formative arts
Major in Make-up & style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Lee Kwang m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bout value of emotion and artistic value in body painting. Existing Fine Art education is generally not interesting to learners.

Aiming at improving the quality of our life and pursuing harmony, a Fine Art curriculum is the one form of the arts which helps to develop our thoughts and emotions through visual expressions. However, Fine Art in reality has been more focused on knowledge-based learning and appreciation according to contemporary curriculums.

Fine Art can be based on the development of creative behavior in human beings, and emotional education from Fine Art has great promise in the development of potential energy. Therefore, I want to study how 'body painting' affects young people's emotional changes and art instinct sensibility.

"Body painting" is the one kind of 'body art', which has been originated from Dadaism and Concept-art in the early 20th century. By the end of the 20th century, the changes in values due to postmodernism - cultural pluralism, compromise, the uncertainty- an unlimited influence on expression in art. Moreover, some contemporary artists tried to learn about vital energy through 'back-to-the origin', which gave rise to creative inspiration and motivation to them.

Now, they are continuously creating Fine Art with attachments about formless, colorless origins and human nature.

Therefore in this study, I considered 'body art' first, analyzed the motive of 'body painting' according to diverse opinions, and systemized its purpose. Besides,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its origin, I tried to understand its cultural heritage and to learn more about its aesthetic, educational value in modern society.

Because "body painting", a special way of Art Education, is done on the human body, and not on canvas or paper, I think it can attract students, even those who aren't confident about art. Moreover, from "body painting" education, students are expected to be change from individual to social one. Especially for the visual-liking learners, Art Education can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emotional development and human nature.